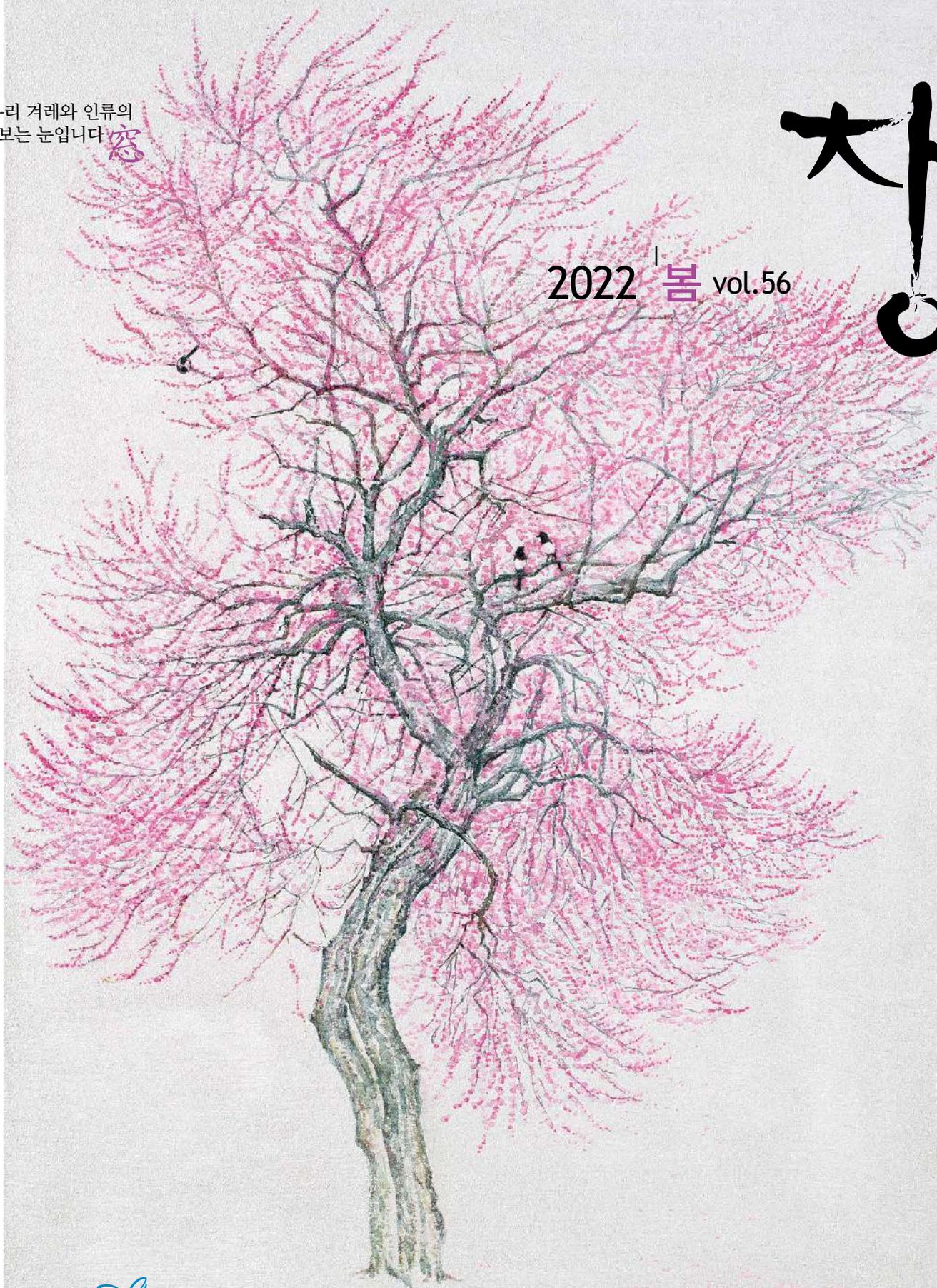


'창'은 우리 겨레와 인류의
문화를 보는 눈입니다

窓

창

2022 | 봄 vol.56



네모난 교실은 잊어라!



전남형 그린스마트미래학교

5개년 175개교, 1조3천억 투자

-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다양한 공간혁신
- 미래형 교수학습을 위한 스마트교실
- 환경생태교육을 고려한 그린학교
-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복합화



표지이야기

김병택, 「華嚴-희소식」, 116.8cm×91.0cm, Acrylic on canvas
 예로부터 매화는 혹한의 날씨를 버티고 이른 봄 고혹한 자태로 꽃과 향기를 드러내는 그 모습에서 선비의 지조와 절개로 비유되며 기품과 품격을 의미할 수 있겠다. 구례 방문길에 화엄사에 들러 각황전 한 칸에 자리한 홍매화의 자태를 감상하는 호사를 누리며, 각박한 어지러운 속세의 삶일지라도 은은하게 번지는 매향과 까치가죽을 통해 모두가 新年報喜의 바람이 이뤄지기를 소망해본다.
 주요개인전 13회 2018 '퇴적'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 光州, 2016 Force 갤러리 초대전, 798 예술구, 북경, 2016 부산 민주공원 초대전 Memento Mori, 2016 Memento Mori,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光州, 2015 Kobe Biennale, Meriken park, 고베, 주요 단체전 200여 회.

2		'창'을 열며 불통(不通) 사회	김옥열
3	특집 기획	새 정부에 바라는 문화정책 새 정부의 문화정책에 바란다 지역 문화 생태계 관련 정책, 이렇게 달라져야 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지속가능성은 가능한가? 예술가는 새 정부에게 바란다	전고필 조인형 황병하 김양균
12	문화 플러스 人	햇피플 인터뷰 창의적 광주다움을 디자인하다	김정희·송진희
17		문화인 인터뷰 시대정신을 그리고 연대정신을 칠하다	주홍·김병택
22		현장 이야기 광주에서 전태일을 이야기하다	지현탁
24		청년 문화인 새로운 문화 콘텐츠 NFT 아트를 품는 지니컬쳐	최성혁
27		기획연재 창조신이자 세계를 주재하는 여신 - 마고여신 1	김상윤
30	문화 공감	진단 전문성을 꾀하는 시대	윤만식
32		프리뷰 오월, 진실의 힘으로! 시대의 빛으로! 시·공간의 확장을 더한 '2022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 광주시립미술관 개관 30주년 "광주미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다"	변재훈 주 홍 김희량
38		문화특 광주에서 유튜브로 산다는 것	윤혁진
40		김옥열의 포토에세이 "자유의 여신은 왜"	김옥열
42		재단소식·회원소식·함께하는 사람들	편집부
48		김향득의 영상기행·편집후기	

불통(不通) 사회

김옥열 편집위원장



청와대 새 주인이 정작 집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온 나라가 난리다. 청와대의 폐쇄적 구조의 문제야 오랜 이야기니까 이해하지만, 취임이나 하고 논의를 거쳐 대책을 내놓아도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 같은데, 혼자 결정하고 지킬 금도도 무시하니 나라가 시끄러운 거다.

이런 걸 흔히 지도자 리스크라고 한다. 리더가 일방통행식 사고와 결정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그게 사회갈등의 원인이 되는 일이다. 대통령이나 단체장, 기업의 오너들이 보통 그렇다.

물론 사회갈등이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해세력간 다툼이 원인일 수 있고, 그 다툼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역량의 부족 때문일 수 있다. 또 어떤 영역이든 그런 갈등을 중간에 조정하거나 중재 또는 순화시키는 주체가 있기 마련인데 그런 구성원의 역할방기가 사태를 악화시키기도 한다. 시민사회의 조정능력, 언론의 충분한 정보제공과 여론흐름 전달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 사회 내 고조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유능한 지도자가 나서서 이러저러한 의견을 듣고 조정능력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지도자를 찾기는 쉽지 않다. 특히나 본인이 일으킨 갈등이라면 절대 해결난망이다. 이해관계를 가진 사회 제 세력들이 모여 숙의에 의해 갈등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겠다. 아주 이상적인 방법들이다. 광주시가 지리멸렬하던 지하철2호선

갈등을 숙의민주주의 방식으로 해결했던 것이 한 사례일 터다. 또 단순히 구성원들의 의견을 잣대로 재서 더 많은 의견을 보이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상당수 갈등은 이런 방식에 기대다. 당연히 반대의견을 가진 이들의 불만이 남고 분위기에 좌우되는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어떤 방법이든 갈등과 대립의 해결방법들 모두에 꼭 전제되어야 할 과정이 있다. 갈등의 시말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하고, 구성원들간에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른 바 '여론'이라는 것이 충분히 흘러다녀야 한다. 정보가 차단되고 여론이 막히거나 왜곡돼 흘러다닐 경우 갈등은 심화되거나 엉뚱한 방식으로 결론날 수 있다. 정보차단에 의한 갈등의 끝은 사회발전의 정체 또는 후퇴다. 정보제공은 정보를 쥔 국가나 지자체 등 당사자들이 내는 거고 유통은 언론은 시킨다. 모두가 투명하고 제 역할을 다할 때 갈등해결이 된다는 이야기다.

근래 광주에 복합쇼핑몰이 논란이다. 그 전에도 구도청 복원, 지하철2호선 문제도 있었고 군공항 이전 등은 지금도 요원하다. 모두 큰 사회갈등들인데 광주는 늘 그런 문제 해결에 시간이 걸리고 시끄럽지만 하다. 갈등이 해결되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꼬인다. 원인이 총체적이라는 데 문제가 크다. 지도자는 우유부단 '왔다리갔다리'고, 사회세력들은 터놓고 말하지 않고 반목만 일삼는다. 언론은 정보전달은 커녕 여론의 흐름도 제대로 읽어주지 않는다. 대표적인 불통사회, 이게 우리 광주의 모습이다.

특집기획

새 정부에 바라는 문화정책

촛불 혁명을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컸을까요? 돌이켜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제 5월 9일이면 새 정부가 들어섭니다. 보수정권 10년 동안의 아픈 기억이 자꾸만 떠올라서 기대보다는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런 점에서 각 계 각층의 새 정부에 바라는 문화정책은 많은 시사점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 편집자 주

- 새 정부의 문화정책에 바란다
전고필_ 향토사 전문책방 이목구심서 대표
- 지역 문화 생태계 관련 정책, 이렇게 달라져야 한다
조인형_ 광주전남연구원 창의문화관광연구실장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지속가능성은 가능한가?
황병하_ 조선대학교 교수
- 예술가는 새 정부에게 바란다
김양균_ 전통문화연구회 얼쑤 대표

새 정부의 문화정책에 바란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을까? IT기술의 발달, 메타버스의 시대 같은 낯선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시대의 백척간두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람의 역할이 축소되고 기술을 따라가기 급급한 세상에서 있지 않을까? 세계와 우리 삶의 변화속도 사이의 간극은 차치하고 기계와 우리 사이의 유리는 이제 끝없이 이어질 것인데, 그 사이 문화는 무엇으로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의문이 드는 시대다. 그럼에도 우리는 문화의 힘을 긍정한다. 사람다움을 가장 명징하게 드러내는 것이 문화 아니었던가.

이제 5월이면 정권이 바뀌게 된다. 새로운 정부는 지난 정부와 그 이전의 정부에서 못다한 일들도 떠안아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국민의 열망과 정권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일들을 도맡아야 한다. 그럼에도 큰 기대감이나 희망 같은 것이 일지 않는다. 이미 내 조국의 문화정책은 뒤죽박죽 망신창이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근본 원인은 문화를 인간의 존엄이자 최고의 행복이며, 누구나 누리는 권리여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정치인을 찾아 본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정권에서는 문화를 국위선양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수혜자의 숫자에 연연하고, 편 가르기를 일상화했던 기억들. 물론 간간히 좋은 정책들도 생성되었다. 문화

바우처 사업이나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그에 해당된다. 문화수용자의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두 정책이 가진 힘이었다. 예술가가 아니면서도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신의 테두리 안에 문화라고 하는 자장을 내재해 두기 때문이다. 그 뒤를 이어 주목할 만했던 정책은 지역 문화진흥법에 준거하여 전국 30여 개 도시를 문화도시로 지정하겠다는 제도였다. 사실 지정에 방점을 두자면 30개에 든다는 것이 가진 변별력과 자존감이지만, 실효적으로 5년간 국고 예산이 지역의 문화력을 신장하고 문화자치를 시행하며, 주민이 뜻하는 문화적인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100여 개 도시가 이를 위해 고군분투했다. 관행처럼 공무원이 주도해서 아예 예비도시로의 진입마저 좌절한 곳도 있고, 주민의 주체화와 무관한 도시가 선정되는 아이러니도 있었지만 그 정책은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다양한 정책의 수립과정과 이행과정을 지켜보았던 경험을 토대로 새 정부의 문화정책에 제언하자면 정책수립의 중심을 어디에 두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말로만 외치던 지방분권이 아니라 실효적인 분권을 위해서는 지역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장의 제왕적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숙의민주주의의 실천역량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문화

자치 또한 문화력의 신장이 동반됨이 당연한 일이다. 각 시군구 단위의 지역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은 지역 문화진흥법으로도 이미 보장되어 있다. 아직 설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지와 응원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발전과 문화력의 신장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선행되었으면 한다. 두 번째는 기 설립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집 등의 노후화와 운영시스템의 변화가 시급하다. 균특회계 등을 통해 지방비로 분산해서 내려 보낸다고 하지만 자치단체에서 문화부분의 인프라 확충을 화급하게 여기는 곳은 찾기 어려운 일임을 감안해야 한다. 세 번째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이 안정적인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국 문화재단과 예술경영지원센터와 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의 재정도 여기에 의탁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그 중심축의 재원이 해마다 흔들거리는 것을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국가가 방기하고 단발성 재원인 복권기금이나 체육기금 등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문화국가라 말하기 민망할 정도다. 네 번째 앞서 얘기한 문화도시 지정 제도를 더욱 확충해야 한다. 내년까지 30개 정도로 그치지 말고 전국의 모든 도시가 문화도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의 재정을 틀어쥔 기획재정부의 엘리티즘과 부처 중심의 사고를 보다 유연하며 국가 비전에 걸맞는 위상에서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공감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소멸되어가는 지역 고유의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무형문화원 같은 기관이 문화재청과 함께해야 할 일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되며 변해가는 생활관습으로 인해 소멸되어가는 노동요, 의례, 세시풍속 등을 어떻게 보전·계승할지 답을 찾아내고 해결하는 정부여야 한다. 여섯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비엔날레 등의 대형 국책사업과 메가 이벤트

등에 대한 위상에 맞는 시책 발굴과 지원을 강화함이 바람직하다. 특히 아시아문화전당은 국가기관으로 운영됨으로서 본디 추구하고자 하는 아시아문화의 집결지이자 발신지로서의 기능에 최상위 가치를 두고, 인력개발, 연구, 창조, 교류 등에 대한 동력의 가능성이 의문에 쌓여 있다. 이러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는 특단의 지원과 제도적 지지가 필요하다. 일곱 번째는 문화정책 의사결정 과정이다. 이제껏 정부의 문화정책의 흐름은 정치인, 고위직 공무원, 국책연구기관, 국가 부속기관, 학계 등의 아이디어에 따른 상황이 비일비재 했다. 문화도시와 도시재생, 문화예술교육 등의 사업을 통해 성숙한 현장인력들을 통해 발신되는 현장기반의 제안들이 정책화 되고 실현되는 시대로 발전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기초단위부터 시민문화예술위원회의 조직이 구축되고 매해 문화의 달 행사가 이들 자치조직과 함께 문화현장의 문제와 미래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토론되고 전파되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 여덟 번째는 미래세대와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강화와 고도화이다. 그간 구축해왔던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활동과 성과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현장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지원과 재정지원 사업이 확장되어 다음 세대의 문화생산과 향유활동이 더욱 풍성해지는 토대를 구축했으면 한다.

새롭게 들어설 정부에 요망하는 정책은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지만 현장의 눈높이에 맞춰 함께 테이블을 만들고 마주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화로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는 앞당겨 질 것이다. 부디 그런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도록 힘을 쏟아 주었으면 한다. ✎



전고필 향토사 전문책임 이목구심서 대표

지역 문화 생태계 관련 정책, 이렇게 달라져야 한다

문화생태계는 크게 창작과 향유 두 축으로 치환하여 살펴볼 수 있었으나 최근 치환하기 어려운 영역들이 증가하고 있다. 협치, 사회적 경제, 마을 만들기 등의 사회혁신 관련 정책들이 등장하면서 혁신적 가치의 매개수단으로써 문화활동의 영역이 점차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유네스코가 제시한 문화 다양성과 지속 가능발전 목표에 출발점을 두고 있다.

유네스코는 1966년 “국제문화협력 원칙” 이후 2015년 “문화정책의 재형성”까지 문화와 발전의 관계, 문화 다양성,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제시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연결하여 경제중심적 발전으로 인한 양극화, 환경파괴, 지역공동체 훼손 등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문화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개인과 집단의 다양한 표현을 존중하는 것이 인권 존중과 직결되며 국적, 인종, 나이(세대), 성적 지향, 정치적 지향, 종교, 장애, 소득수준 등 개인이나 집단의 문화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차별과 배제가 아닌 포용과 소통, 이해와 협력을 위한 사회적 자원이자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문화의 역할 또는 속성에 대한 인식은 국내 문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문화적 요소를 반영하기 위한 문화

영향 평가제도가 도입된 바 있고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등 정책 변화가 수반되었다. 특히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주민역량 강화, 지역공동체의 참여기반 조성, 거버넌스 구축,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수요자 및 현장중심의 사업전략을 도입하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이 포괄적으로 수용되는 사업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문화주권, 문화재생, 문화 협치 등의 지역문화 관련 아젠더들과도 결합된다. 지역 문화는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 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 문화생태계는 주체(공공·민간), 법·제도, 사업·콘텐츠, 시설·공간(공공·민간), 협력체계 등의 구성요소들과 예술 기반, 문화교육, 생활문화, 역사문화 등의 활동 영역이 문화 다양성, 문화 민주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면서 상호작용하는 장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이런 구성요소와 활동 영역이 원활히 상호작용하기 위해 문화·예술의 역할을 창작과 향유에서 문화적 가치 공유로 확대하고 연결하는 사회적 장으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이 문화 정체성을 만들거나 고유한 문화적 자산이나 활동을 창출하는 수준을

넘어 보다 본질적이고 다양한 정체성과 역할을 요구 받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지역 문화 생태계의 관점에서 문화·예술은 좁은 의미의 문화 사업, 장르로서의 문화·예술을 넘어 지역사회 전반에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고 연계하는 사회적 층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문화, 역사문화, 생활문화, 문화적 도시재생, 축제, 마을 만들기, 사회적 경제 등이 지역 문화 생태계의 통합성, 연계성 차원에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사업 시행 이전부터 주민참여를 제도화한 도시재생사업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한 많은 수의 사업들이 행정 전달 체계를 중심으로 중앙으로부터 공급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즉, 일부 사업들이 지역 문화 생태계가 처한 상황이나 결핍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을 수 있다. 정책의 현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술한 통합적 접근과 더불어 의사결정권이 아래로 이양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광역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기초에서 지역사회 커뮤니티로 이행되어야 하며 행정구역 중심에서 생활권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주체들의 자발성, 공동체성, 역량 등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발성과 공동체성을 이끌어 내고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사업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책의 현장성 강화를 위하여 의사결정 권한 위양과 더불어 지역 문화 관련 정기적 실태조사와 지표 작성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역 문화 실태 파악은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물적·인적자원 분포, 문화격차, 향유실태 등을 파악하고 기준 지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며 지역 문화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과 연계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세부적으로 지역 문화 생태계 관련 구성요소와 활동 영역, 가치체계와 지향점(문화 민주주의, 문화 다양성, 지속가능성 등)이 반영된 생태계 전반의 활성화 요인을 도출하여 지역 거점별 자발적 변화 요소를 파악하고 정책지원 사

업 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정책의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 생태계 관련 주요 거점지역을 설정하고 거점지역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을 도출하여야 한다. 특히 문화·예술인이 밀집해서 활동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정책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문화예술인들의 삶의 방식이 축적된 공간이자 도시의 구조 속에서 꾸준히 변화하고 축적된 생태계이며 사람과 장소가 연계되고 그 속에 기능을 내포하고 있는 지역 문화 공유 자산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속가능성, 문화 다양성, 집단적 창의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점지역들에 대한 정책사업은 다른 지역 문화 공간의 거점지역 진화를 촉진하는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예술가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거점지역을 브랜드화하기 위한 지역 문화 생태계 기반형 예술 분야 취·창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 예술 분야 취·창업 준비자를 위한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취·창업을 준비하는 예술 분야 전공자나 작가들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 예술 취·창업 컨설팅단 구축을 고려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컨설팅단은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전환하고 자생력을 확보해야 하며 사업 시작 단계부터 프리랜서 작업자들을 위한 회계, 행정, 계약, 작품 판매 등을 대행하는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창업자의 지역 문화 생태계 정착 비율을 제고해야 한다.

지역 문화 생태계의 견고한 구축을 위하여 지역 문화 생태계 내에서 개별 문화정책사업 주체들이 활동 과정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론장과 플랫폼이 형성되기를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 ✎



조인형

광주전남연구원 창의문화관광연구실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지속가능성은 가능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 계획 제3차 수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현 상황 유지 및 미래전략 부족이다. 제3차 수정안에는 ACC의 미래에 대한 대비 전략과 향후 합리적 운영방안, 지역사회와의 소통 방안, 그리고 예산의 지속적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5대 문화권 관련 새로운 연계 사업은 거의 없었고, 기존의 사업을 열거하는 수준이었으며, 특히 CT 연구원 사업을 계획에서 제외한 것은 심각한 무리수라 생각한다. 정리하면, 제3차 수정계획은 미래지향적인 변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 광주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줄 미래전략을 제시해 주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미래의 생존을 위한 소프트웨어 창출 및 전문 연구인력 확보 방안을 제시해 주지 못했다는 점 등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이런 과제를 다시 한번 지역사회에 숙제로 남겨 주었다.

제3차 수정계획은 스마트 문화중심도시를 추진 목표와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스마트 문화중심도시라는 구호는 4차 산업혁명이 한창 진행 중인 현대 사회에서는 적절치 못한 구호인 것 같다. 현재 광

주의 상황과 주변 환경, 그리고 ACC의 내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수정안에 제시된 목표와 전략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아시아'(of Asia 또는 for Asia)라는 키워드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시아라는 단어는 광주 문화 예술의 미래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용어이며, 광주 문화 전통의 아시아 확산 및 아시아문화 전통의 광주 연계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연결고리이다. 따라서 광주 문화의 아시아 융합과 아시아문화의 광주 융합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 개발은 아시아문화 허브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을 인지해야 한다.

ACC의 미래는 광주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연계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로 담보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온 5대 문화권 사업과 연계된 ACC 프로그램의 창의적 개발과 광주와 아시아를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의 개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ACC는 2028년까지의 아 특별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별 어려움 없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문제는 2028년 이후 ACC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 것인가이다. 따라서 ACC는 미래를 위해 지금까지의 사업 방식이나 핵심 기능의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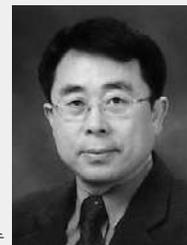
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변화의 모습에는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 변화뿐만 아니라, 운영 체계의 변화와 예산 배분의 변화, 그리고 조직체계의 변화도 포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ACC는 주로 기술 기반 사업과 콘텐츠 창·제작 사업을 우선 시행하였으며, 미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킬러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 사업을 등한시하거나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았다. ACC는 공연과 전시 등 창·제작 사업을 주로 외주에 의존하였으며, 지역사회의 창·제작 능력이나 잠재력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콘텐츠 창·제작 사업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스토리텔링과 아카이빙과 문화콘텐츠 개발이다. ACC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를 위해서는 2028년 이후의 사업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며, 향후 문화 경쟁 시대에 걸맞게 창·제작 사업의 근간인 연구 사업을 중시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문화콘텐츠 창·제작 단체들과 소통을 확대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제3차 수정계획은 지금까지 수행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연계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문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다. 추진과제의 기본 방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데이터로 구축되어야 한다. 제3차 수정계획에는 거대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선언적으로 포함하기보다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창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구축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구축 방안에는 아시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와 아시아를 위한 우리의 역사와 문화(K-컬처)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의 5대 문화권 사업에 대한 연계 프로그램의 지속적 연구도 포함되어야 한다. ACC의 지속가능성은 아시아의 문화와 광주의 문화와 K-컬처의 선순환 연계 구조와

시너지효과 창출 모델 개발을 통해 유지될 수 있다.

2028년 이후 개방형 문화 경쟁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2028년 이후 ACC가 직면할 가장 커다란 문제는 운영 주체와 예산 문제와 전문 인력 확보 문제이다. 향후 예산 확보를 위한 경쟁 시대의 어려운 환경을 유연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ACC 사업의 핵심인 지속 가능한 문화콘텐츠(킬러 콘텐츠 포함)를 개발해야 하며, 이는 다양한 연구와 전문 인력 확보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현재 ACC의 상황은 심각하다. 아시아 역사, 문화, 문학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는 5명뿐이며, 아시아 5대 권역 중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의 전문가는 한 명도 없다. 2028년 이후 ACC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3차 수정계획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 확보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2028년 이후 ACC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차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운영 주체의 선정과 합리적인 예산 확보 방안 수립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2차로 광주를 대표하는 킬러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문화콘텐츠의 발굴과 개발을 위해 광주 5대 문화권과 아시아 문화 연구를 위한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고, 3차로 이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공연, 전시, 창·제작 업체들의 잠재력과 생산능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



황병하 조선대학교 교수

예술가는 새 정부에게 바란다

참 난감하다. 하필 원고 제목이 <예술가는 새 정부에 바란다>다. 사실 새 정부란 단어도 너무나 생소하고, 새 정부로 인정하기엔 마음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문화 예술정책이 뭔지도 모른다는 것이고, 굳이 알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원고를 쓰기 위해 <국힘당의 문화 예술에 대한 공약>을 새삼스럽게 살펴본다는 것 또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도 창은 발행이 되어야 하고, 담당자가 걱정할까봐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예술가들이 선거 기간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지지 성명이나, 찬조연설 등으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서 몇 자 적는다.

“소신대로 얘기하는 것 보기 좋아. 잘한다.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이렇게 힘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왜 그랬어.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고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모두 저를 아끼는 분들입니다.”

연합뉴스 TV에서 온화하고 미소 띤 모습으로 이재명 지지 찬조 연설을 하던 배우 이원종 씨가 생각이 났다. 그 후에 하루에 수백 통 이상의 욕설과 협박성 문자들이 걸려온다고 이야기를 한다.

“솔직히 많은 걱정이 앞서고 있네요. 국힘당의 문화 예술정책도 잘 모르겠고, 이번 선거에서 진보적

인 예술가들을 정리하려고 하는 모양도 보이고...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회귀하지 않을까, 예술가들을 줄 세우고 갈라치기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명박근혜 때의 블랙리스트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지원도 줄어 들것 같고, 표현의 자유도 위축될 것 같고, 한류문화 열풍도 식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과거 블랙리스트의 경험을 했던 단체의 후배가 하는 소리다.

이번 선거에서도 많은 예술인들이 양쪽 진영으로 갈려서 지지선언을 하거나 유세 현장이나 방송매체를 통해 직접 후보 지지 연설을 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참여했다. 나 또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그래도 문화예술인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이번에도 문화예술계에 이명박근혜 때처럼 블랙리스트라는 괴물에 의해 진보 성향의 많은 예술가들이 예술 현장에서 밀려나거나 공모사업에서 배제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정부 주도하에 수천 명의 문화예술인과 문화 예술단체들을 감시·검열하고, 배제하기 위하여 수많은 공공기관이 총동원된 국가적인 범죄라는 것이 밝혀졌다.

실제로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있었던 문화 예

술계 블랙리스트 관리 명단 규모는 2만1362명에 달했으며, 이 중에 사찰, 검열, 지원 배제 등 실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는 총 9273명에 이른다고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 개선 위원회’가 2018년 6월 27일 발표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후략)라고 되어 있고,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헌법에도 버젓이 명시되어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정치적인 잣대로 재단하여 통제한다는 것은 문명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심지어 선거전부터 국힘당 안상수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존경하는 아티스트로 거론되어야 할 분이 좌파들의 네거티브 프레임에 씌어 공격당했다는 것이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고 답답하다”면서 “김건희 씨가 아티스트로 우리나라 수준을 높여주는 사람인데, 변론해 주는 사람이 안 나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문화 예술계 쪽은 좌파들이 많기 때문이며, 이어 좌파 문화 예술계를 확 바꾸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집권 후 정치보복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던 터라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다시 시행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으며, 좌파 운운하며 좌파 문화계를 바꾸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국민의힘이 과거 국정 농단 시기로 되돌아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검찰공화국을 꿈꾸는 국민의힘이 선거 승리로 기고만장한 상태에서 과잉충성하는 자들에 의해 많은 진보적인 예술가들이 얼마나 힘든 5년을 견뎌야 할지 두렵기조차 하다. 코로나로 인해 3년째 예술가들은 참혹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TV를 켜는

새 정부에 바란다면 예술가들에게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고, 이념이나 신념에 따른 불이익이나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천명해 주길 바란다.

것도, 그 누구와도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도 힘든 시기이다. 지역과 이념으로도 부족해 세대와 남녀를 갈라 쳐버린 이번 선거는 우리 모두에게 상처로 남을 것이다. 이제는 긴 시간을 두고 조금씩 치유해 나가는 길밖에 없다. 국가의 위상은 끝없이 상승하는데 정치꾼들만 득실거리는 정치판은 국민들의 의식 수준보다도 턱없이 낮다. 굳이 새 정부에 바란다면 예술가들에게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고, 이념이나 신념에 따른 불이익이나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천명해 주길 바란다. 정상적인 정부라며 지금 한류열풍의 바람이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범죄를 저지른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고 하신 백범 김구 선생의 말씀으로 마무리한다. ♪



김양균 전통문화연구회 얼썬 대표

문화플러스인_ 핫피플 인터뷰



창의적 광주다움을 디자인하다

대담 김정희 편집위원 송진희 광주디자인진흥원장

광주디자인진흥원은 물론 디자인비엔날레 방향성 또한, '융합과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에 두고 있어요. 디자인진흥원, 디자인비엔날레가 지역성을 기반으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디자인 트렌드를 제시함으로써, 지역은 물론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이하 김) 먼저 늦었지만 제7대 광주디자인 진흥원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 드립니다. 그동안 디자인 전문가로 정책이나 현장 실무를 두루 거친 책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선정 되셨는데요, 직접 조직에 들어와서 관리직 여성 리더로서 지식 경영을 위한 실질적 책임을 맡아 일 하시면서 느끼신 소감이 있으신가요?

송진희(이하 송) 33년간 대학에서 디자인과 교수와 예술대학장을 역임했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중앙정부와 광주시 디자인 및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광주디자인진흥원 원장으로 취임하고 나니, 그동안 밖에서 느꼈던 것 보다 매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놀랐어요. 특히, 디자인 관련 전문성 뿐만 아니라 인사와 조직관리 분야의 경영능력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그동안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이사, 협회장, 추진단장 등을 지낸 경험이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취임 후 광주디자인진흥원이 더욱 효율적인 조직 운영으로 지역 산업 발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경영혁신도 단행했어요. 어느 기관에서나 기관의 발전을 위해, 리더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아이디어가 풍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임기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으로 선도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미래 비전을 위해 지역 사회와 최신 정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식,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실 계획이나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혹은 멘토링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됩니다.

송 지난해 2023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 추진단장을 맡으면서 광주시, 각계 전문가들과 지혜를 모아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확정했습니다. 우리 광주가 '문화'로 먹고 살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 아시아의 문화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고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031년까지 5년 연장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광주가 명실상부한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하리라 봅니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다운 디자인 선진화를 위해서도 우리 디자인진흥원이 아시아문화전당과 협업을 통해 추진해 나갈 전략과제들을 발굴하는데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과 중앙의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취임하고 3달 동안은 조직진단과 조직개편 등 경영혁신에 방점을 뒀고, 지금부터는 2023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들을 수립해 가고 있습니다.

김 그동안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회를 거듭하면서 성과가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다양한 문화 산업과 정책이 있는데 그 표현 방식의 고유성을 인정하면서 세련된 광주만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광주디자인 진흥원의 운영 방침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송 민선 7기 들어 시장님께서 '광주다움'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디자인을 통한 미래 비전과 트



렌드를 제시하고, '광주다운 가치'를 담은 차별화된 디자인, 다양한 산업·기술과 융복합, 글로벌 비즈니스 등이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로컬'과 '글로벌'이 따로 없죠. 지역에만 머무르고, 안주한다면 '우물 안의 개구리'고, 새로운 먹거리도 창출할 수 없지요. 그래서, 광주디자인진흥원은 물론 디자인비엔날레 방향성 또한, '융합과 글로벌리제이션(Glocalization)'에 두고 있어요. 디자인진흥원, 디자인비엔날레가 지역성을 기반으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디자인 트렌드를 제시함으로써, 지역은 물론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문화 산업 그중 디자인 관련 상품이나 아이디어는 자본이나 재생산 기술 그리고 상품화를 위한 시장경제의 노동 조직, 즉 창의적 인력을 바탕으로 완성된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산업의 창조자와 노동자의 관계나 문화의 상품화에 대한 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송 문화예술이나 디자인의 핵심가치는 'Creation(창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작품 가치는 물론 산업·경제적으로도 큰 효과를 가져 옵니다. 특히 문화산업에서 창의적인 아이템은 'one-source multi-use(원-소스 멀티-유스)' 관점에서 산업 연관효과가 매우 커요. '뽀로로'나 '디즈

니'와 같은 캐릭터디자인 하나의 파급효과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보르도TV)나 기아자동차도 디자인경영으로 성공한 사례죠. 결국 이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서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지역 정착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일류 인재가 세계 일류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업 성장과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가 정착될 거예요. 문화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콘텐츠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의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광주에서 문화산업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연관분야의 인재들이 광주에서 양성되고,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해요. 아울러 문화를 상품화하는데 디자인은 문화상품의 기반이자 기본 토양이 되요. 작은 물건 하나든 광주를 대표하는 페스티벌 같은 문화상품이든, 문화의 품격을 올리려면 처음 단계부터 디자인 기반 문화상품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가전 등의 기업에서는 이미 기술 위에 디자인을 덮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에 기술을 담는 프로세스로 바뀐 지 이미 오래죠. 광주시에서 문화를 상품화하는 모든 기관들이 디자인진흥원과 협업을 하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격이 달라지고,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김 위와 관련 디자인진흥원이 개원한지 17년이 되었다 들었습니다. 그 동안 광주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와 성과에 대한 시민들의 정서적 공감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 우리 광주시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지자체)에 비해 디자인, 문화산업 분야에 많은 재정투자를 해오고 있어요. 그러나 지정학적인 여건과 문화 관련 시장의 사이즈, 시민들의 문화소비 등 여러 측면에서 부족한 것도 사실이죠. 또한,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브레인 드레인(brain drain, 고급 두뇌유출)도 문제점으로 들 수

있어요. 광주디자인진흥원은 그동안 지역 디자인 산업은 물론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우리 시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지역 디자인산업 육성은 물론 공예문화산업 육성, 인쇄문화산업 육성 등 디자인을 통한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물론 빛고를 핸드메이드페어는 지역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지난해 10월에는 광주 남동 인쇄거리에 ‘인쇄비즈니스센터’도 마련했어요. 특히, 디자인·문화 관련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착을 위해 ▲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정착 청년일자리사업(40명) ▲ 캡스톤디자인 청년일자리 프로젝트(70명)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참여가 이뤄졌고, 상당한 성과도 내고 있지요.

그러나, 문화산업 투자에 대한 성과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디자인진흥원을 비롯해 유관기관들의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시간, 그리고 더 과감한 투자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화중심도시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사랑과 적극적인 문화생활은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소중한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김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계신 사업이나 광주디자인 산업 발전을 위한 새 길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송 최근 기후변화 대응전략으로 ‘탄소중립’이 지역은 물론 전 세계 핵심 이슈고 4차 산업기술 발전으로 산업, 경제, 사회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광주시도 미래 100년을 위한 ‘대전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스마트·펀 시티(Green·Smart·Fun City)’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디자인을 통한 탄소제로 녹색도시, AI 중심의 스마트시티, ‘노잼’ 탈출 펀 시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시, 진흥원 구성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는 중입니다.



광주시가 추진 중인 EBS의 IP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가칭)광주 EBS 캐릭터랜드를 조성사업에 우리 디자인진흥원이 사업추진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는 진흥원 내에 캐릭터들이 AI기반 기술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는 다양한 콘텐츠 즉 전시와 공연, 영상 등으로 구현될 예정이고요.

최근 라이프스타일이 변하면서 문화관광 소비도 크게 늘고 있죠. 전주, 여수, 순천 등은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고 있고요. ‘그린·스마트·펀 시티(Green·Smart·Fun City)’는 새로운 광주의 미래입니다.

김 디자인 전문가로서 우리 광주의 길 위에서 만나는 건물이나 스트리트 퍼니처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광주만의 공예 상품의 위상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송 현재, 공공디자인을 비롯한 우리 광주의 전체적인 디자인 수준은 사실 선진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도심 거리, 각종 건물 뿐만 아니라 시설(물), 상품에 광주만의 디자인 가치를 잘 담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도시재생이든, 스마트 도시 구축이든 기술보다 디자인을 기반으로 초기 설계부터 이뤄져야 합니다. 외관의 모양만 다듬어지는 디자인이 아니라 디자인을 통한 시민들의 정서적 편안함, 편



리성, 범죄예방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디자인이 우리 광주의 공공디자인에 녹아져야 해요. 작가의 작품철학이 돋보이는 작품도 좋지만 시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합리적, 합목적성이 돋보이는 디자인 철학이 필요해요.

광주 공예 상품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것들도 있고, 앞으로 제품력을 불어넣기 위해 더 많은 디자인 작업이 필요한 것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공예’라는 것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국가의 핵심 산업이고, 공예품은 생활 제품이었어요. 기술과 소재의 발전, 산업화 등으로 공예품은 장식품 정도로 인식되고 있지만, 디자인과 융합을 통해 새롭게 발전해야 해요. 특히, 무등산 분청사기나 신창동 유적에서 출토된 칠(漆), 목제품, 섬유 등 우리 광주의 역사성과 고유성을 바탕으로 대표 공예품의 특화 발전도 매우 중요합니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나 ‘오헨즈 브랜드 인증사업’을 보면 신청자들이 아주 많아요. 광주의 공예인력이 많고 손재주가 우수하여 공예문화산업도양을 잘 다져갈 수가 있다는 방증이지요. 앞으로 우리 진흥원도 이 점에 착안하여 공예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려 합니다.

김 세계적 문화 명소나 우리나라의 특별한 문화 공간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버려진 공간을 디

자인이나 미래 기술력을 활용하여 예술적 향취 가득한 매력적인 장소로 바꾸었는데요, 낙후된 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역사성과 장소성을 살린 디자인 산업 단지나 창작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디자인 중심도시 광주, 느낌이 충만한 도시 광주를 시민들에게 포지셔닝 하신다면 방법은?

송 대규모 투자를 통해 신도시, 재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트렌드는 ‘도시재생’입니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쇠퇴한 도시, 공동화된 공간에 문화, 디자인 등을 통해 새롭게 탈바꿈시키고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인데요. 특히, 우리 광주는 이같은 도시재생을 통해 매력 넘치고, 생산적이고, ‘찐잼’ 공간으로 가치를 높여가야 해요. 우리 진흥원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시재생계획 과정에서 디자인진흥원과도 서로 논의가 되면 좋겠어요. 디자인 하나로 죽은 거리나 공간을 살려내는 사례도 아주 많지요. 그러나, 페인트로 걸만 번지르르게 꾸미거나 하는 단순 장식차원이 아니라 창작-생산-소비가 이뤄지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일체화된 구역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진흥원에서는 광주시에 ‘공예문화클러스터 구축’과 같은 차별화된 사업 제안을 통해 창작-생산-소비가 선순환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고요. 결국 이러한 콘텐츠들이 모여서 타 도시와 차별화되고 나아가 광주 관광의 맥이 될 것입니다.

덧붙여, 역사성과 고유성, 장소성 등 ‘광주다움’을 더하면 기존의 다른 도시재생과 차별화되고 ‘편 시티, 광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의 넘치는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문화향기가 넘치는 디자인 도시 광주의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 ♪



시대정신을 그리고 연대정신을 칠하다

대담 주홍 차유예술가, 메이홀 큐레이터·김병택 사) 광주민족미술인협회 공동회장



주 먼저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소개와 함께 사단법인한국민족미술인협회광주지회(이하 민미협)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 저는 90년대 후반에 ‘광주민미협’에 가입을 했습니다. 대학시절은 우리 주변의 삶과 현실에 관련한 작품을 진행해 왔었는데 그 시기에 가입하고 난후 광주의 역사를 나만의 시각으로 그려보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현재까지 작품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작품의 경향은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5·18 민주항쟁’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현재적 의미로 재해석하고 조형화시키는 작업으로 이어오고 있는데 20여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리얼리즘에 입각한 상징적인 어법으로 붉은 색 계열의 금남로와 분수대, 도청 앞 광장 관련한 시리즈작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제가 속해있는 사단법인 한국민족미술인협회 광주지회는 민족문화와 민족미술을 지향하는 미술인들의 상호연대와 공동실천을 통하여 미술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 지향적인 담론을 담아내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과거 ‘광미공’의 발전적 해체이후 ‘민족미술인협회 광주지회’로 개칭했었고 최근에는 체제 정비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대안과 지향점을 다각도로 모색하면서 현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 그래요. 우리는 80년대 학번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주 치열했던 투쟁의 시기가 있었죠. 독재 시대에 살다보니 눈앞에서 벌어지는 부당함과 그것에 저항했던 선배들, 동료들이 잡혀가기도 했고 우리도 언제 저런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는 그런 위협 속에서 살았잖아요. 회장님 뵈니까 그 때 생각이 나네요.

김 그렇죠. 저희 20대, 30대까지만 해도 워낙 억압하고 감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강했었고 국가폭력에 대한 부당함이나 억울함을 표현할 수 있는 창구도 없었지요. 그 당시의 선배 동료들을 떠올려 보면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맨몸으로 저항하며 투쟁해왔었죠. 그분들이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렇게 80년대를 관통하면서 그분들의 나이가 20대, 30대가 흘러서 어느덧 이제 50대 중후반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주변에는 현재도 치열하게 자기의 삶에 매진하면서 자기성찰과 현실참여적인 작품 활동을 하는 동료나 선후배님들이 여전히 계시거든요. 그분들과 함께하면 숙연해지기도 하고 남모를 부채감과 다른 한편으론 삶이 추동되는 계기가 되곤 합니다.

주 맞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언제부터인지 그런 공동체 의식이나 자발성의 문화가 사라졌죠. 비엔날레, 아시아문화전당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외부의 큰 돈이 광주에 유입되니까 가장 중요한 예

술의 자율성과 내적 동기는 사라지고 미술이 그냥 프로젝트화 되버린 거죠. 그래서 안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김 또 한편으로는 그렇죠. 문화예술 생태계의 문제 때문이라고 봐야죠. 저 자신도 광주에서 행해지는 문화예술관련 행사와 예산의 편성과 집행, 기획이나 프로젝트사업들을 보면 해괴하기도 하고 줄을 잘서야 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생각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예술의 자율성, 내적동기 지적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를 비평하고 견제하는 아트저널은 '예향'이라는 구호아래 제 식구 감싸기로 광주에서 이미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과거시대에 비해 이념과 투쟁의 논리에서 현재는 확연하게 예술계의 생태지형이 변했다고 할까요? 문화권력과 시스템 그 하드웨어에 예술가는 소비재로 전락하고 예산이 몰리는 특정 장르의 쏠림현상이나 눈앞의 실적에 급급한 이벤트성 예술정책들이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지요. 그림만 그려서 먹고 산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 끈을 놓지 않고 현실의 부조리한 부분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미술 운동을 '광주민미협'이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과거는 공동체라는 정신 속에서 그렇게 행해왔는데 지금의 문화지형 속에서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과거엔 예술가와 예술작품을 일용직처럼 너무 쉽게 동원하고 부러먹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죠. 저도 청년들과 많은 교류를 하고 있지만 그 친구들의 합리적 논리에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중하게 초대해서 그 과정과 절차에 맞는 적절한 응대가 필요한 미술문화의 정착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문화, 그것부터 자발성의 작은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 하지만 그 안에서도 자발성이나 공동체 정신으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리더로서 고민도 하실텐데 민미협은 어떤가요?

김 저는 이미 민미협은 토대가 다 닦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동안의 숙련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적인 부분일수도 있기도 합니다. 자발성은 모두의 선택이지만 각자의 삶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죠. 예술을 하고 창작활동을 하더라도 반드시 삶과 병행되어야 하고 그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광주민미협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온 수 많은 회장단과 함께 고락을 나누었던 선후배, 동료 그들은 모든 청춘을 이곳에 다 바친 그들의 희생이나 봉사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광주민미협은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회원님들이 마음만으로도 소속감을 가지고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연대감을 느끼고 있고 그것이 현재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을 존중해야 할 몫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그런데 광주민미협이 언제부터인가 좀 분위기를 바꿔가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시민들과 함께 해볼까?', '좀 더 쉬운 언어는 없을까?' 이런 고민하는 느낌도 들고 폭넓게 연대하고자 하는 느낌도 들었어요.

김 맞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회원 모두가 변화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몇 년 동안 그 노력은 일정부분은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의 실천은 '연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은 어떻게 시민들과 또는 주변의 예술인들과 소통할 수 있느냐에 방점을 두었죠. 다 같이 연대해서 '오월'과 '광주'를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고 민미협 내부적으로 '연대' '연대하자' '우리 연대하자'라고 하는 그 화두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고 그와 뜻을 함께 해주셨던 미술관, 기획자 분들의 성원으로 8개의 전시 섹션으로 묶어 결실을 거두었던 게 기억에 납니다. 올해 또한 그 영역을 확장하고자 그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대의 포괄적 의미로서 올해 전시는 3가지 섹션으로 ‘전환’ ‘호명’ ‘청년특별전’등으로 기획하여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더 연대의 폭을 넓히고 기성세대 4~50대 끈대가 주류가 아닌 20대, 30대들의 청년 세대들과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전시와 다양한 장르와 실험을 통해 모색하고 있는 단계이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요, 특히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그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청년 기획전’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주 청년 예술가들과의 연대도 관심이 가네요

김 청년들을 위한 특별전은 취지는 순수하게 소통과 연대의 기획입니다. MZ세대들과 저희세대 간에는 보이지 않는 벽처럼 소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광주민중화운동’도 그들의 관점과 해석이 다르다고 생각 했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전시 공간이나 판을 깔아주고 청년들에게 전시를 직접 한번 맡겨보기 위해 제안서를 저희가 여러 청년단체들한테 보냈어요. 공모작 중에 저희도 꽤 마음에 들었던 <안녕하세요 팔공학번 〇〇〇입니다> 전시기획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소개하면 20대 대학생 및 청년 작가들 위주로 구성되어있고 장르도 평면이 아닌 시각, 영상, 이미지, 애니메이션을 통해 ‘오월정신’을 관객과 참여형으로 진행하면서 ‘5월 그날의 현장’을 ‘五感’으로 일깨워 주는 전시를 추진 중이고 저도 많이 기다려지는데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 대학생 청년기획자에게 미안하기만 합니다.

주 기획도 청년이 하고 다 모든 것을 청년이 할 수 있게 한다는거죠? 형식도 다양하구요?

김 네. 양림미술관에서 5월 14일 개관할 예정인데 모든 장르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월상회’ 세트장 재현과 모바일 프린터라벨기, 플라로이드 등을 이용해서 관객과 소통하고 섹션별로 관련한 제시어를 통해 마인드맵을 만들어 SNS에 공유하

는 방식인데 기성세대는 상상할 수 없는 젊은이들만의 소통방식이 있더라고요. SNS 통해서 전시외형을 증폭시키는 그런 방법들까지 청년세대들이 구현해 결과물로 보여주겠다고 하니까 저희는 적극적으로 기회와 여건만 제공을 하고 이외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정말 좋은데요? MZ세대가 직접 기획하고 전시까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 우리는 일종의 간섭없이 지원만 하겠다, 이런거잖아요. 청년들 반응이 좋을 수 밖에 없네요. 청년과의 연대, 그 밖에 올해 예정중인 연대를 위한 활동들이 있나요?

김 올해 5·18민중항쟁 42주년 34회 오월展으로 기획중인 ‘轉換’展이 있습니다.

이 전시는 대동정신을 통한 역사적 과거에 대한 통찰과 예술가의 상상력으로 제시해 볼 수 있는 전시 기획인데 우리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고,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인가 하는 명제를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민협 소속작가의 참여에 국한하지 않고 국내 또는 광주, 해외 작가를 포괄하여 타 지역 작가들을 대거 70%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배타적인 타성에서 벗어나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외부의 시선으로 ‘광주’를 조망해 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

주 굉장히 의미있는 여러 사업들을 준비 중이네요! 많은 분들이 놓치지 않고 참여할 수 있게 자세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 방금 말씀드린 ‘청년특별전’이 양림미술관에서 열리고 ‘제34회 오월미술제’ 행사로써 앞서 말씀드린 ‘轉換’展은 2022년 5월 13일부터 5월 25일까지 은암미술관과 무등 갤러리에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전시기간 중에는 포럼 ‘오월정신과 예술가의 상상력 우리의미래’ 이라는 주제를 준비했고 외부 발제자와 토론자를 모시고 시민과 참여작가가 직접 교

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5·18 거리미술전 呼名! ‘광장에서 만나다’는 2022.5.14.~30까지 ACC 광장주변과 금남로에서 거리 미술전으로 진행됩니다. 현시대와 유기적으로 살아 숨 쉬는 현장으로서 오월정신을 실현하려는 간절함에서 출발한 전시이구요, 80~90년대 금남로 거리미술전이 시민들과 함께 오월을 공유하고 진상 규명을 외치는 현장으로 불려냈던 것처럼 소통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기후정의를 위한 모두의 예술’은 카톨릭 광주대학교의 후원으로 인류생존을 위협하는 환경과 생태의 문제를 시민들과 고민하는 전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 그동안 민미협광주지부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대표적인 행사 몇 가지 소개해 주세요.

김 저 또한 90년대 초에 광주 YMCA에서 열렸던 겨울미술학교가 매우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혼돈의 시기에 미술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들을 짧은 기간 동안 일깨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매회 광주시민들의 열렬한 호응이 있었고 오늘로 빗대면 예술과 인문학의 지적호기심을 충족시켜줄 수 있었던 기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09년에 광주5·18재단에서 열렸던 ‘강강수월래’전이 생각납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전국 규모의 전시였는데요. 저의 작품‘삼십공화국’이 국정원사찰로 인해 철거 압박과 외부압력으로 전시 오프닝 행사를 못하고 휴관했던 사건이죠. 미술계의 큰 이슈로 부각되어 예술가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검열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웃지 못할 코메디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후 5·18재단내의 전시장은 그 기능을 못하고 폐관되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외 작년 2021년에 진행된 ‘친일청산하기 딱 좋은 날 탕탕탕’전도 꼽고 싶네요. 청산되지 못한 일재잔재의 숙주들이 우리사회에 기생하고 있는 현실



을 드러내고 다카키 마사오를 비롯한 친일파들을 화면으로 소환하여 처단하는 전시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5·18기록관에서 진행된 ‘파랑만장’전 또한 광주 민중미술사를 정리한 아카이빙 전시로서 그史料적 의미가 크게 느껴집니다.

주 마지막으로 앞으로 광주민미협의 목표와 김병택 회장님의 개인적인 바람 등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김 광주민중미술인협회의 역사와 성과는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민중미술’이라는 시대적 명제 또한 이미 40년을 지나 미술사에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규정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미술의 지평 속에 우리가 개선해 나아가야 할 진부한 부분도 분명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요, 과거는 단체와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미술운동에 대한 희생과 봉사에 관대하고 자신을 헌신했다면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그 속에서 회원 각자 자신만의 영역과 목소리를 찾아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작가로서 자존을 세웠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하고 시민에게 사랑 받는 ‘광주민미협’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 합니다! ♪

광주에서 전태일을 이야기하다

“그러면 제가 배우로 참여해 볼게요.” 이 무모한 대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강릉에는 김성수 열사를 기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강릉에서 지내게 된 대학 시절부터 매년 6월이 되면 김성수 열사의 부모님 그리고 강릉의 시민사회분들과 함께 모란공원 추모제를 참여해 왔습니다. 추모제에서 김성수 열사의 의문사, 국가로 인해 희생된 의문사를 밝히기 위해 투쟁해온 부모님의 운동역사, 강릉 시민사회의 연대, 그리고 김성수 열사의 대학시절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알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들이 하나씩 모일수록 강릉에서 함께 활동하던 친구들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에게 김성수 열사와 함께한 이들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 까라는 고민이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김성수 열사가 대학시절 사랑했던 ‘연극’이라는 문화예술 방식을 통하여 이야기를 만들어보자는 작당모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연극에 대해, 열사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조언을 얻기 위해 저희는 경북 청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열사의 이야기를 연극이라는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팀을 알게 되었고, 그 팀은 바로 연극 <전태일>을 기획하고 공연을 한 ‘나 무담움직임연구소’였습니다. 바로 연락을 드렸고 흔

쾌히 만나겠다고 해주셔서 친구들과 강원도 강릉에서 경북 청송까지 한달음에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짧지만 깊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연극 <전태일>의 제작 배경과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저희가 강릉에서 고민하던 부분들과 어려움을 여쭙보면서 연극을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선 전체 과정을 참여해 봐야 한다고 제안해 주셨고, “그러면 제가 배우로 참여해 보겠습니다!”라고 무모한 대답으로 2021년 연극 전태일 ‘네 이름은 무엇이나’ 전태일로써 저의 시작이었습니다.

시민들이 모여 함께 만들었던 2021년 연극 <전태일>

연극 <전태일>은 ‘함께하는 연극 전태일’이라는 사단 법인에서 제작, 공연 지원의 목적을 두고 운영되며, 주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분들, 연극을 통해 열사 정신을 전달하고자 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정신과 사랑을 각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연극을 만들 거 가는 것입니다.

2021년 연극 <전태일>은 2021년 11월 13일 서울도봉 공연을 시작으로 총 16회, 9개 지역에서 공연했고, 광주는 12월 13일, 14일 두 번의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광주는 ‘2021년 함께 연극 전태일 광주 공연 추진 위원회’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진행되었고, 광주에서 활동하는 노동단체부터 시민단체까지 열사 정신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함께하기 위해 조직했고, 단순 공연만을 위한 자리가 아닌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보이는 노동 문제들을 듣고, 알아가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두 번의 공연은 430석이라는 만석을 채우며 성공적이었고, 예술단체나 기관이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기획으로 만석을 채웠던 건 처음이자,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숙제 그리고 이제는 변화해야 하는 것들

2021년 연극 <전태일>은 공연이 끝났음에도 초청을 원하는 지역도 있을 만큼 많은 응원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비전공자이자 문화예술 생태계를 처음 경험한 저로서는 공연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꾸준히 이어지기 위해선 빠르게 변해야 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공연의 적자 구조입니다. 성공적으로 마쳤던 광주 공연도, 함께하는 연극 전태일 또한 적자의 결산을 보았습니다. 후원금, 티켓 판매를 통해 수익을 냈음에도 기본적인 연극 수입의 구조가 공연을 지속하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문화·예술인의 처우입니다. 함께 한 배우들을 보면 자신의 예술을 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병행은 기본입니다.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예술만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예술성을 가지고 예술인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삶을 계획하고 꾸려갈 수 있도록 정책이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가자
말 없고 내성적이었던 김성수 열사는 무대 위에서



세상의 문제와 억압받던 시절에 대해 당당하게 외치던 연극 단원이었습니다. 연극이라는 예술을 통해 세상에 자신의 목소리를 외치던 청년 김성수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김성수 열사에 관한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고자 했던 이유는, 지금 우리가 시도해볼 수 있는 우리만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대와의 연결, 문화예술을 통한 가치 전달, 그리고 함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모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2021년 연극 <전태일> 배우로 참여하면서 ‘소통이란 건 현장에서만이 아닌 무대라는 곳에서도 가능하구나’를 경험하면서 나뉠의 깨달음과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지금은 본업으로 돌아와 강릉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바람들을 연결하고 만들고자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명 주변에 변화의 바람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존재할 겁니다.

함께 모아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일단 시작하면, 시작됩니다. ✨



지현택 생태전환마을내일협동조합 이사장

새로운 문화 콘텐츠 NFT 아트를 품는 지니컬처

#1. 지니컬처 소개

안녕하세요, NFT 아트 에이전시 지니컬처입니다. 저희 “지니컬처”는 MZ 세대의 새로운 트렌드이자 핵심인 “NFT” 아트를 품는 기업입니다. “NFT”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 아트 시장은 많은 변화와 혁신과 함께 다양한 색의 옷을 갈아입고 다시 우리에게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예술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이면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죠. 저희 지니컬처는 이러한 부분에 집중하여 예술과 기술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나아가 우리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 영역의 새로운 시장 개척 및 확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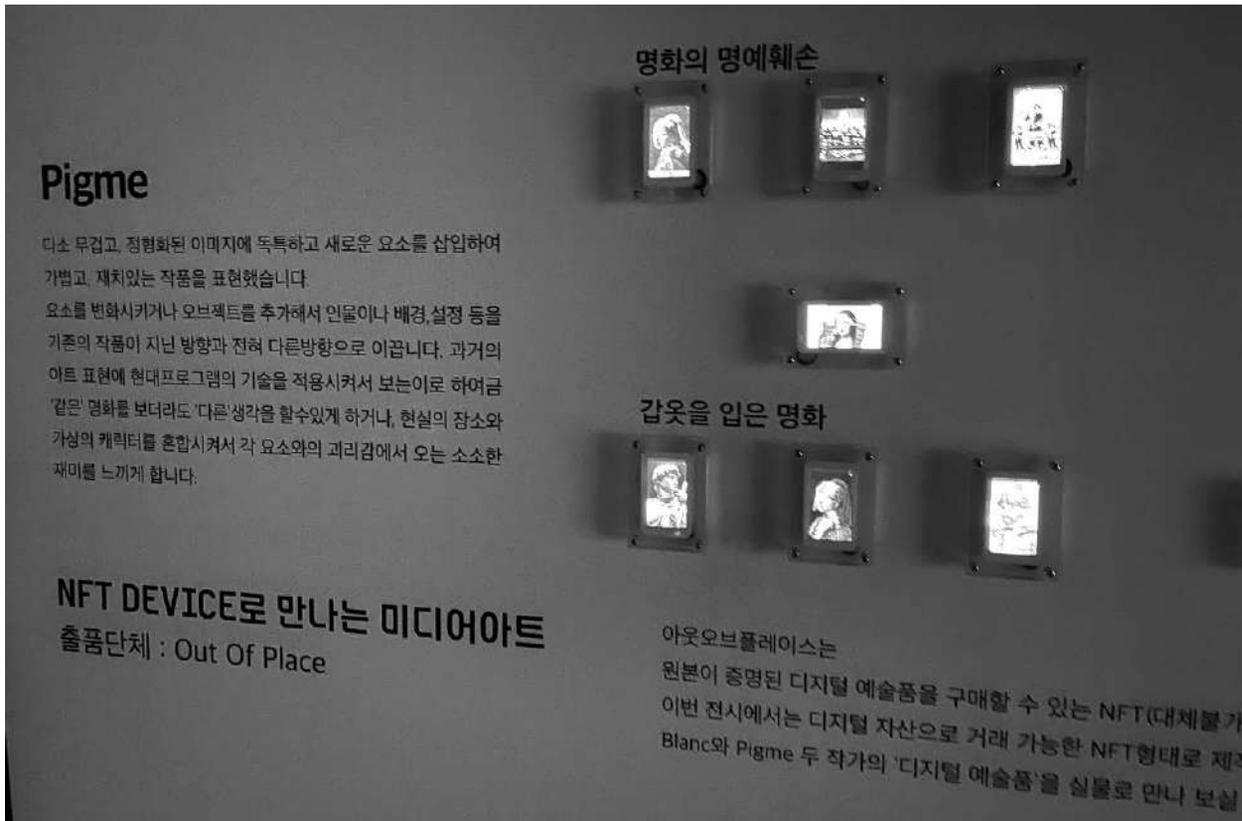
#2. NFT 아트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하지만 사실 해외에서는 예전부터 “수집”이라는 문화가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발전해 왔으며 그곳에서 각 물품들의 고유성과 가치를 부여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당연히 최근에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은 거기에 또 다른 변화와 혁명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죠. 특히 “NFT” (대체불가 토큰)는 기존 아트 시장에 많은 유명 작가들 작품에서 불거졌던 진품 진위 증명과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등장하였고 아울러 그동안 예술 시장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디지털 아트 생태계에 큰 변화와 성장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의도치 않게 발생한 지난 2년여간의 공백기 동안 많은 부분에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았고 아울러 기존에도 지속적으로 해왔던 많은 아티스트들과의 다양한 협업 사례들을 또 다른 형태로 선보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NFT 아트 에이전시라는 새로운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3. 아트 에이전시란 무엇이며,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아트 에이전시란 말이 아직은 많은 분들에게 생소하리라 여겨집니다. 사실 저희도 아직은 웬지 잘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지만, 아트 에이전시는 아티스트들의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역할들을 대행함으로써 아티스트들이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역할로 거기에 더불어 아웃소싱, 브랜딩, 콜라보레이션, 마케팅 등의 다양한 업무 디자인 작업을 통해 아티스트들의 성장과 판로 개척에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내 작가들이나 신진작가들에게 어려움으로만 느껴졌던 해외 시장 진출 및 다소 생소한



블록체인 및 NFT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및 관리를 제공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내 작가들 및 신진작가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다양한 작품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는 경험의 장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4. 혹시 쌓아온 성과가 있다면?

아직은 NFT나 아트 에이전시라는 단어가 아직은 다소 생소한 부분이라 많은 부분에 기회를 갖지는 못했지만 작게나마 성과라고 한다면 2021년 문체부 창의, 혁신형 예비 사회적 기업 선정, 2021년 사회적 기업이 육성사업 우수 창업팀, 2021년 광주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NFT 아트 프레임 전시 등 짧은 기간이지만 나름 내실 있는 성과를 이루었고 올해 6월 서울 NFT 아트 포럼, 전시 및 옥션을 준비 중이고 나아

가 다양한 시도들도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5. 현재 광주 NFT 아트 시장의 현주소는?

안타깝게도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새로운 문화와의 접점은 아무래도 수요와 정보라고 생각하는 데 그러한 면에서 광주는 비록 “문화도시”, “예술의 도시”라는 타이틀과는 걸맞지 않은 문화적 생태계에 여전히 많이 침체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NFT나 블록체인이란 말이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하며 핵심 키워드로 자리매김했으나 여전히 직접 피부로 느끼는 광주 시민 또는 예술가들은 얼마나 될까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몇몇의 지역 아티스트들을 만나보기도 했지만 아직은 NFT 아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이해로의 접근



은 쉽지 않다고 여겨지지만 예술의 표현의 방식에 새로운 한 수단으로써 그리고 그 가치를 새롭게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선 좀 더 많은 예술인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저희 입장에서도 이러한 현 상황을 인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저희 앞으로의 새로운 미션의 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6. 앞으로의 계획은?

기본적으로 아트 에이전시는 당연히 작가와 작품이 메인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지역 내 다양한 장르의 작가 풀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 내 작가 발굴과 대학 및 관계 기관과의 다양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고 가능하다면 시작 단계에서 몇 가지 아트 전시를 기획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에서 첫 시작하는 작업이니 만큼 아직은 지역 작가들에게 생소한 NFT 아트 장르를 올바르고 지속 성장 발전 가능한 방향으로 함께 성장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7. 바라는 것이 있다면

사실 모든 일이 그렇듯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관심” 어찌 보면 단순한 단어 일지 모르지만 이것 역시 산업이고 사업이기에 결국은 그 안에서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주인공들의 관심은 절대적이라 여겨집니다. 오랫동안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온 저로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지역 작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당연하게 작가들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 지역 산업의 성장은 결국 유관, 연계 기관들의 관심과 지원이 당연히 뒷받침되어야 하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그동안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기에 지역에서 성장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지역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유관기관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8. 맺음말

어린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듯 저희에게도 소망을 품고 그 꽃을 피워 갈수 있도록 응원 이 필요해요. 이러한 응원, 관심 및 사랑은 당연히 좋은 결실 또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누림 들로 꽃 피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최성혁 NFT 아트 에이전시 지니컬쳐 대표

창조신이자 세계를 주재하는 여신

- 마고여신 1

2012년 담양 수북으로 들어오면서 대부분 공적인 활동을 정리하려 하였다.

65세가 넘으면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에서도 스스로 물러났다. 그 후 2년간은 우리 집안이 겪은 '5·18 이야기'를 정리해 공개하고, 그다음에는 '신화 이야기'를 써볼 생각을 했다. 나야 학자도 전문가도 아니니, 손주 녀석들에게 재미있게 들려주는 그런 가벼운 신화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그런데 '윤상원기념사업회'와 '광주마당' 등 2개의 사단법인을 만들고, 그 뒷감당을 하느라 내 계획은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말았다. 2019년에야 겨우 우리 집안 5·18 이야기를 『녹두서점의 오월』이라는 책으로 정리해 공개했을 뿐이다.

2020년에는 신화 이야기를 33 꼭지 정도 쓸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뜻밖에 은암미술관에서 내 소장품 전시를 두 차례나 치르느라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 신화이야기를 그야말로 손주 녀석들에게 이야기하듯 가볍게 써보려 했으나, 사실은 신화 즐거리들이 가물가물해져 책을 다시 읽어보기 전에는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다.

'아무려면 어때! 생각나는대로 지껄여 보다가 나중에 빠진 걸 덧붙이면 되잖아?'

'말이 안 되는 건 고치면 되고.'

이런 똥배짱이 생겨 기억에 남은 고갱이를 털어 신화 이야기를 하나둘씩 풀어보기로 했다.

마고여신 1

'메이홀'은 해마다 5월이면 작가 한 사람을 초대하여 전시회를 열곤 한다. 2019년에는 원주에서 작업하고 있는 김봉준을 초대했다. 김봉준은 평생 이른바 '민중미술'을 하던 작가이나, 지금은 '생명과 영성'이 넘치는 세계를 천착하고 있다. 김봉준은 우리나라에서 오직 하나뿐인 '신화미술관'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신화순례』라는 책을 쓰기도 하였다. 그는 유라시아 수천 km를 횡단하면서 신화세계를 탐색했고, 아메리카 인디언의 영성에 빠져보기도 했다.

메이홀에 걸려 있는 김봉준의 작품 하나를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아이를 업고 있는 아낙'이 좌우로 펼쳐진 고통스런 현실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었다. 이 그림이 걸린 전시장은 마치 신비한 제단처럼 보였고, 애를 업고 있는 아낙은 제단의 여신처



위 강원도 원주 신화미술관의 모습
아래 김봉준 작가의 <조선수난민중해원탱>

림 느껴졌다. 이 전시 공간에서, 여러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춤을 추었다. 제단에 바쳐지는 주술적인 춤이었다. 그 여성들 속에는 뉴욕에서 온 신화학자 현경교수도 있었다.

나는 김봉준이 그린 '아기를 업고 있는 아낙'을 마고 여신의 현신이라고 해석했다. 태고적 마고 여신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처참한 광경을 보고 큰 고통을 느끼면서 분개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 것이다.

마고 여신? 마고 여신은 도대체 어떤 신인가?

지리산은 방장산이라고도 하는데, 삼신산의 하나라고 하여 그리 부를 게다. 금강산이 봉래산, 지리산이 방장산, 한라산이 영주산으로 삼신산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다는 말씀. 진시황의 심부름꾼 서불(徐市, 徐芾)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이곳 방장산인 지리산까지 왔다는 이야기도 있다.

지리산에는 노고단(老姑壇)이 있다.

'마고 할미를 모시는 제단' 또는 '늙은 마고를 모시는 제단'이라는 뜻일 텐데, 창조신이었던 마고에 대한 신화나 전설은 이미 사라져 버렸다. 다만 금환락지(金環落地)라는 명당 이야기에 마고가 나올 뿐이다. 마고가 머리를 감으려고 한 다리는 지리산에 또 한 다리는 섬진강 너머에 두고, 금가락지를 빼서 내려놓은 자리가 바로 금환락지의 명당이라는 이야기다. 그 명당이 바로 운조루(雲鳥樓)라고도 하고, 운조루 근처 박부자집이라고도 한다.

지금 우리에게 '마고'라는 이름이 낯설지만 우리나라 여러 곳에 아직도 마고라는 지명이 남아 있고, 창조신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전설도 있다. 『신선전』이라는 중국 도교 서적에도 마고가 나온다. 84인의 신선 중 '왕원'(왕방평)이라는 신선이 마고라는 여

신선을 만나는 장면이다. 여기에 나오는 마고는 마고 할미가 아니라 18세 정도의 아름다운 여인으로 나온다. 그러나 『신선전』에 나오는 마고는 우리의 마고와는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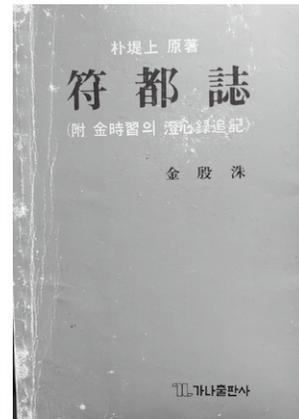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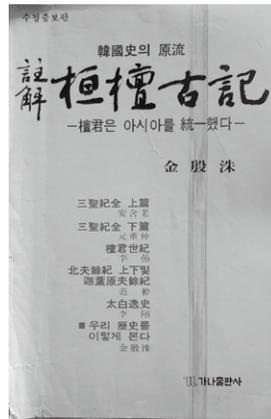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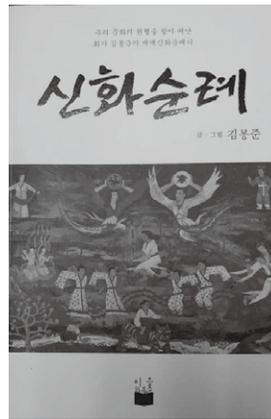
마고 ‘할미’니 삼신 ‘할미’니 설문대 ‘할망’이니 하는 ‘할미’ ‘할망’은 늙었다는 뜻이 아니라 ‘크다’ 또는 ‘위대하다’는 뜻일 게다. ‘큰 마고’, ‘위대한 마고’는 기본적으로 대지모신(大地母神)이지만, 설문대할망처럼 창조여신이기도 하다.

그런데 『부도지(符都誌)』라는 책에는 마고 여신의 이야기가 매우 자세히 나온다. 『부도지』에 나오는 마고 여신 이야기를 들어보자. 마고 여신은 인류가 태초에 살던 시원의 장소 ‘마고성’을 만들었다. 마고성은 파미르 고원에 있었다고 한다.

『부도지』는 이렇게 시작한다.

“마고성은 지상에서 가장 높은 성이다. 천부(天符)를 받들어 선천(先天)을 계승하였다. 성 중의 사방에 네 명의 천인(天人)이 있어 관(管)을 쌓아놓고 음을 만드니, (중략) 마고(麻姑)는 짐세(朕世)에 태어나 희노의 감정이 없으므로 선천을 남자로 후천을 여자로 하여 배우자 없이 궁희(穹姬)와 소희(巢姬)를 낳았다.”

선천과 후천의 사이에 ‘짐세’가 있는데, 마고는 짐세에 스스로 태어난 것 같다. 아마 혼돈의 시대에는 무언가 웅~하는 소리만 있었는데, 마고는 이 ‘태초의 소리’ 그러니까 일종의 ‘파동’ 속에서 태어난 것이다. 구약 『창세기』에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데, 『부도지』에서는 태초에 ‘소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 소리에서 창조신 마고가 태어나고, 마고가 선천과 후천의 정령을 받아 궁희와 소희를 낳고 마고성을 만들



었다는 것이다. 궁희와 소희 역시 선천과 후천의 정을 받아 황궁과 청궁을 낳고 백소와 흑소를 낳는다. 궁희가 낳은 황궁과 청궁, 소희가 낳은 백소와 흑소가 인류의 네 시조가 되는 셈이다. 짐세에 소리로부터 스스로 태어나 인류를 만들고 그 인류가 살 마고성을 만들었으니, 마고 여신은 참으로 창조신이자 세계를 주재하는 여신이겠다. ♪

- 다음호에서 계속



김상윤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고문

전문성을 요하는 시대

학내(學內) 문화운동부터 시작하면 근 44년동안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이렇게 제 자신이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은 처음인 것 같다. 나름대로 자부심과 자존감을 지니고 살았는데 말이다.

무슨 말이고 하니 올 1월 17일에 문체부에서 발표한 초대 '아시아 문화 전당 재단'(이하 재단)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임명소식 때문이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이 재단이 생긴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작년에 이병훈 국회의원이 당시 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이하 문화원)이 업무에 차별성이 없고 중첩된 사업이 많다고 판단하고 이 두 조직을 전당으로 일원화하고 문체부 산하에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는 재단을 설립하기로 국회에 발의를 하여 어렵게 통과된 것이 재단 설립의 배경이다. 그 과정에 의원실과 문체부, 광주광역시, 문화원 노조,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포럼,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 연대)등과 수십 차례 회의를 거쳐 확정된 안을 통과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문화원 직원(노조원)들이 탈락자 없이 100% 전당과 재단으로 업무이동을하기로 합의까지 한 것이다.

이런 여러 기관과 시민단체의 노고로 생긴 재단 초대이사장에 전 광주 MBC 사장으로 정년퇴임한 최영준님이 임명되었다. 아시아 문화 전당 재단의 전 조

직인 '아시아 문화원' 원장도 광주kbc 출신의 이기표님이였다. 방송·신문 등 언론인 출신들이 문화예술계에 자리하나 생기면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든 모습을 보고, 정작 본인들이 적임자라고 생각한 문화예술계에 종사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전라도 생활언어로 '맨만한 게 흥애×이구먼!'(만만한 게 문화예술계) '기나고동이나 다 헤쳐 묵을라고 하네!'(누구나 덤벼드는 모양) 하면서 술좌석에서 한탄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또 그러한 형태를 본 것이다. 그나마 언론과 문화예술은 문체부라는 큰 줄기에서 가지치기를 한 부분으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고 사료되기도 하지만, 대표이사로 임명된 김선옥 전 광주광역시 의원 출신은 해도 해도 너무나 인사라고 지나가는 개도 웃어버리는 인사라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이분의 전력을 알아봤더니 시 의원도 하시고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이 된다는 민주당 공천을 받아 서구청장에 2번이나 출마했는데 무소속으로 출마한 인사에게 패해 민주당내에서 공천의 잘못됨으로 한때 엄청 시끄럽게 한 장본인이고, 의원활동, 구청장 출마 등으로 완전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확연하게 되었다. 결국 한마디로 죽 썬서 개 준 꼴이 되어 버렸고, 재주는 꿈이 부리고 돈은 패국놈이 챙긴 꼴이 되어버렸다.

시민연대는 최근에 문체부에 ‘이의 신청’을 한 상태이고 마찬가지로 만족한 답변이 오지 않으면 다음 절차로 행정소송으로 ‘임명 무효 가처분 신청’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보은차원의 인사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전문성에 맞는 자리를 추천하든지, 권하든지 해야지 왜 만만한 문화예술계 쪽이냐고 광주 문화예술인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80여 개 단체들이 연대하고 있는 시민연대가 논평을 냈는데 얼마나 창피했으면 첫 문장이 ‘우리는 차마 논평을 발표하기조차 부끄럽다’고 시작한 성명서였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 논평에 이병훈 의원실도 동조를 하고, 광주광역시에서는 따로 대변인 성명으로 이 인사의 부적절함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런 말도 안되는 인사를 실행에 옮긴 주체가 어디인가라는 의구심이 점점 심해진다. 추측컨대 전 현직 국회의원, 민주당 내, 청화대 등 정치적 연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지만 확실한 답은 모르는 상태에서. 시민연대는 직접 주무부처인 문체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하는 부분은 보안상 비공개, 별 의미없는 부분은 공개로 통보가 와서, 직접 장관 면담을 요청하여 세종시 문체부에 갔더니 장관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대표로 출장 중이라 제1차관을 만나 광주 문화예술계 누구의 추천을 받았는지, 누구에게 의견 수렴을 하였는지 물으니,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면서 문체부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임명했다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길래, 단도직입적(單刀直入的)으로 임명 철회나 자진사퇴를 종용(慫恿)할 수 없냐고 물으니 임명 철회는 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자진사퇴 종용은 당사자가

범법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종용을 할 수 없다는 설명만 듣고 내려왔다.

그래서 시민연대는 최근에 문체부에 ‘이의 신청’을 한 상태이고 마찬가지로 만족한 답변이 오지 않으면, 다음 절차로 행정소송으로 ‘임명 무효 가처분 신청’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번 인사의 원지가 청화대라는 설이 돌고 있다.

5년전 김선옥 대표가 대선에 깊숙이 관여하여 보은차원에서 청화대의 보이지 않은 손이 이번인사에 깊숙하게 개입해 문체부가 어떠한 해법도 제시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마저 회자되고 있다. 그렇다면 백번 양보하여 보은차원의 인사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전문성에 맞는 자리를 추천하든지, 권하든지 해야지 왜 만만한 문화예술계 쪽이냐고 광주 문화예술인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엄동설한에 자기 밥그릇을 뺏기는 심정이 작금의 광주 문화예술인들의 심정이 아닐까 싶다. ♪



윤만식 광주문화재단 비상임 이사

오월, 진실의 힘으로! 시대의 빛으로!

1980년 10일간의 항쟁은 곧바로 진상규명과 책임 자처벌 투쟁으로 이어졌고, 한때 ‘광주사태로 매도되었던 5·18’이 이제는 국가기념일이 되어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까지 말하는 시대입니다. 기쁘고 기뻐할 일이지만 올해 42주년 5·18민중항쟁 기념행사 준비는 남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촛불항쟁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며 압도적인 지방선거와 총선 결과로 만든 정부와 국회는 너무나 무기력했고, 특히 작년엔 학살주범 전두환과 노태우를 한마디 사죄와 반성도 듣지 못하고 떠나보냈습니다. 완전한 진상규명도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을 통한 더 나은 민주주의의 꿈도 요원해 보이는 것 같고 조금은 맥이

빠지기도 하지만, 우리에게겐 주저앉지 않고 씬 없이 싸웠던 오월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많은 단체들과 함께 힘 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16일.

국립5·18민주묘지와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 참배를 시작으로 광주시민과 온나라 온겨레에 「제42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의 출발을 알리면서, ‘언제나 5·18의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심’에 대한 감사인사를 가장 먼저 드리고 출범식을 진행했습니다.

‘5·18정신의 힘’ ‘저항과 나눔, 자치와 연대로 대동세상을 만든 오월공동체정신’으로 힘오와 배제를 넘고, 더욱 심화하는 양극화와 불평등, 기후위기, 세대





간 갈등을 넘을 수 있는 '시대의 빛'을 밝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꿈을 이어갑니다.

우리 지역과 전국의 현안을 살펴서 '국민대회'와 전야제의 '민주평화대행진'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가 모일 수 있도록 하고 오월광주가 온 나라의 위안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고 처음의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오월에서 통일로!'

미얀마와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무고한 민중 희생이 멈출 수 있도록 오월광주가 민중의 편에 서서 광주의 오월이 평화의 바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재권력의 국가폭력에 맞섰던 힘으로,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종전선언·평화협정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 변영 통일의 시대를 계속 열어갑니다.

큰 흐름에서 행사 준비는, 기존에 해오던 추모와 계승 행사들은 내실을 다지고, 새로운 행사 특히 청년과 청소년들이 직접 만드는 행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합니다.

'청소년사회참여사업'이란 이름으로 우리 지역 16개 청소년수련시설(협회)들과 소통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직접 행사를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고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의 청년 청소년이 오월광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5·18을 겪지 않은 세대가 만들어가는 오월행사를 통해 청년과 청소년이 5·18의 당당한 주인공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80년 5월 27일, 항쟁의 마지막과 곧바로 이어진 진상규명 역사를 기념하는 행사로 '특별기획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1년 41주년 기념사업이었던 '5월 27일 자정영화제'의 장단점을 살피고 청년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5·18정신의 미래세대로의 계승도 함께 도모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지난 2년간 많은 행사가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아쉬움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5월 17일 전야제를 비롯한 주요한 행사를 통해 5·18민주광장과 금남로를 다시 열도록 준비합니다.

이런 준비의 마음이 광주시민과 온나라에 전달되어 금남로를 가득 채울 5월을 꿈꾸며 미력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시·공간의 확장을 더한 '2022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

‘광주가 품고 있는 대동세상의 꿈과 그 정신을 시민들과 함께 어떻게 현재진행형으로 이루어갈 것인가?’ 이 질문에서 시작된 융합예술축제 ‘세계지성이 광주를 말하다’가 올해 2회를 맞이하게 됐다.

광주는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세계적인 원형 광장을 갖고 있는 도시다. 바로 분수대가 있고 5·18최후의 항쟁지 옛 전남도청을 배경으로 상무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금남로, 245전일빌딩 등 민주광장은 시민의 피로 시민의 자존을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다. 우리는 군부독재에 횃불을 들고 가장 먼저 저항했던 그 장소에서 민주주의가 훼손될 때마다 촛불로 이어졌던 함성 가득한 시민들의 열망을 기억한다.

그 기억의 토대위에서 광장에 발을 딛고 세계적인 지성이 광주정신을 이야기하며 광주시민들과 대화의 장을 열고, 그 대화와 열린 강연은 다양한 분야의 예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게 된다. 그것은 시민 사회에 던지는 우리시대의 질문과 집단지성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다.

인문융합예술로 펼치는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는 작년에 유니언 신학대학의 정현경 교수가 광장에서 시민들과 대화하고 오월어머니들과 최보결 치

유의 춤꾼이 하나가 되는 춤을 췄다. 드로잉 퍼포먼스로는 50인의 화가들과 10팀의 시민작가들이 걸개 그림에 ‘2021MYANMAR=1980GWANGJU’라는 주제를 그림으로 그려 아시아 민주주의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시민들은 맨발로 민주광장에서 함께 평화의 춤을 추며 큰 호응으로 참여했다.

재단에서는 앞으로 이 큰 주제를 가지고 가면서 시의적절하게 소주제를 정하여 광주정신의 시공간을 확장하기로 했다. 2022년은 6월 11일 토요일과 일요일, 1박 2일이다. 5·18진상규명을 외치며 전국으로 확산된 6·10항쟁을 기억하며 날을 잡았다. ‘광주오월’의 시공간의 확장성을 생각한 것이다. 1980년 5·18에서 1987년 6·10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의 열망의 시간, ‘5월에서 6월로’라는 시간의 확장이다. 공간은 광주 민주광장이지만 전국에서 오는 작가들과 시민들의 참여, 온라인으로 연결된 세상으로 공간의 확장, 광장의 확장이다. 또한, 광주시민정신에서 세계시민정신으로의 확장을 뜻한다.

6월 11일 토요일 PM 6시 30분, 문 여는 공연으로 대동의 춤이 시작된다. 타악 그룹 ‘얼쑤’의 ‘대동세상의 신성한 울림’과 상무놀이로 축제는 시작한다. 민주광장의 상서로운 기운을 끌어올리는 공연이 될 것



이다.

PM 7시부터 세계지성과의 대화, 광주정신 이야기가 100분간 진행된다. 올해 주제는 ‘민주주의, 광주 그리고 언론’이다. 광주시민들은 왜 언론을 믿지 않고 의심하게 됐는가? 우리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과 언론지형의 문제들을 살펴보고 가짜뉴스가 남발되는 사회에서 인권의 문제, 민주주의와 언론과의 관계 등을 논하며 대안을 찾아본다. ‘2022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의 강연에는 촛불시민연대의 김민웅 교수와 100분 토론의 진행자 정준희 교수를 모셨다. 민주광장에서 광주의 집단지성을 만난다. 토론 사이사이에는 음악공연으로 흥을 나눌 것이다. 지성과의 대화는 음악공연으로 마무리 된다.

이후에는 두 번째 대동의 춤이 시작된다. 치유의 춤 4팀과 최보결과 오월어머니들이 광장에서 평화의 춤으로 시민들과 함께한다.

행사 시작부터 마무리 시간까지 진행되는 2022

년 오월정신릴레이아트는 화가와 그림책작가로 구성된 전문작가 50인과 시민작가 20팀이 참여하여 각각 걸개그림 한 점씩을 완성한다. 주제는 ‘광장민주주의-518610’이다.

여기에 올해는 늦은 밤 광장에서 민주시민캠프가 열린다. 1박 2일로 다음 날 자정을 넘기고 AM 1시까지 영상과 함께 LP디제이쇼 ‘응답하라 1980~1987’다. 대중음악으로 그 시대를 기억하고 흥겹게 민주주의를 주제로 광장파티를 하며 마무리한다. ♪



주 흥

2022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 총감독

광주시립미술관 개관 30주년 “광주미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다”



오지호, 추경, 1953, 50×60.0cm, 캔버스에 유채

올해는 광주시립미술관 개관 30주년을 맞이한 매우 역사적인 해다. 1992년 지역공립미술관 최초로 시작하여 조사·연구 및 전시, 작품수집과 관리, 교육 등 미술관의 기본적 기능 외에도 1995년 전국 최초 창작 스튜디오 운영 및 2009년 북경 창작센터 확장, 1995년 광주비엔날레 창설, 2007년 서울 인사동 LIGHT 갤러리 개관, 2016년 사진전시관과 2017년 하정웅미술관 개관, 2022년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GMAP 개관 등 한국 미술관 역사에 방점을 찍는 굵직한 성과를 일궈냈다.

개관 30년을 기념하는 해로서 미술관의 역사와 성

과 및 광주미술의 궤적을 통해 미래를 전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상반기 전시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관 1층에서는 4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두 번째 봄>전이 개최된다. 전시는 한국 미술관 문화를 선도해 온 광주시립미술관 개관의 의미와 광주작가들을 재조명함으로써 한국미술계 내 광주미술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전시타이틀 ‘두 번째 봄’은 알베르 까뮈의 글 ‘가을은 모든 잎이 꽃이 되는 두 번째 봄이다’에서 차용하였다. 타이틀 ‘봄’에 만물을 소생시키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Spring과 다시 본다는 의미로서 Seeing 두 가지 중의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처음 미술관을 시작한 광주의 도전정신이 봄(Spring)이었다면, 그동안 변화와 확장을 거듭해 개관 30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다시 찾아온 봄(Spring)이다. 또한 30년의 역사와 함께 한 광주작가들을 다시 봄(Seeing)으로써 재조명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 지난 30년의 역사 속에서 현대미술의 급속한 변화와 다양성을 반영하는 광주미술의 변곡점들—예를 들어 광주시립미술관의 개관과 광주비엔날레의 창설,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선정 등—을 중심으로 지난 30년을 조망해 보고, 사회·문화의 변화에 따른 광주미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전망하고자 한다. 전시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중요한 분기점과 그것이 미친 영향들



임직순, 포즈, 1978, 90.7×72.3cm,
캔버스에 유채, 광주시립미술관 소장
(이건희 컬렉션 기증)



손봉채, 보이지않는 구역, 1997



강운, 순수형태-심상(心象), 2000,
333×218cm, 캔버스에 유채,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컬렉션

을 다루며 “항해의 시작”, “역동과 실험 & 연대와 확장”, “뉴미디어아트” 등의 섹션으로 구성된다. 참여작가는 박문중, 송필용, 강운, 손봉채, 김상연, 신호운, 권승찬 등 미술관의 역사와 함께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지역작가 33명으로 구성된다. 다양한 매체와 폭 넓은 주제의식을 선보이는 참여 작가들을 통해 지역미술의 다양성과 확장가능성을 보여 줄 것이다.

같은 기간 본관 2층에서는 1992년 개관 당시 1종 미술관 등록을 위해 마음을 더해진 첫 기증자 128명의 정신을 기리고자 마련된 소장품전으로 <기증의 시작>전을 개최한다. 전시 작가는 오지호, 허백련, 김영중, 현중화, 박서보, 서세옥 등 한국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이다. 또한 로비공간에서는 광주시립미술관 30년의 역사를 엿 볼 수 있는 아카이브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본관 3층에서는 <색채의 마술사, 임직순>전이 4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열린다. 호남미술 아카이브구축을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전시로서, 올해는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한국을 대표하는 색채화가 임직순(1921~1996)을 조명하고자 한다. 임직순은 호남 서양화단의 싹을 틔웠던 오지호

에 이어, 조선대학교 교수(1961~1974)로 재직하며 호남 서양화단의 기틀을 마련한 작가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색채의 화가로 불리며 사랑받았던 임직순의 예술세계를 조명하고, 지역미술계에 미친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지역 미술사 정립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전시는 1959년 작품부터 1996년 작품에 이르기까지 80여 점의 작품과 기고 글, 삽화 및 사진 등 아카이브 자료를 함께 선보인다.

광주화단의 기틀을 마련한 대가의 업적과, 미술관 개관 30년 동안 걸어 온 길을 회고하며, 현대미술의 실험성과 다양성을 반영하는 동시대 광주작가들의 참여한 작업에 이르기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함께 음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모든 전시는 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전시가 병행되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대비해 미술작품 향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



김희량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

광주에서 유튜버로 산다는 것

“우주인과 외계인을 포함한 광주광역시를 사랑하는 130억 인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주 맛집을 소개하는 오로지스튜디오입니다.”

이제는 시그니처가 되어버린 오로지스튜디오의 인사말. 부끄럽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인트로가 결국엔 익숙해지고, 어느새 구독자 5천명을 돌파한 결코 작지 않은 맛집 유튜버 윤혁진이 되어가고 있다. 최근엔 무등산을 다녀왔는데,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만들었다. 등반하기 전,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볼 수 있는 커뮤니티에 사진을 올렸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무등산을 등반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말이다. 그리고 중머리재에 도달하기 전 즈음, 한 아저씨 구독자분을 만났다. 하산하시던 길이었는데, “광주 맛집 소개해줘서 고마워요~”라는 말을 내게 전했다. 그 전까진 올라가는게 정말 힘들었는데 구독자분의 한마디로 날아갈 것 같은 발걸음으로 등산을 마쳤다.

가끔씩 이렇게 마주치는 우연한 구독자분들과의 인연이 해마다 잦아진다. 2018년부터 운영해온 만 4년간의 유튜브 채널 운영이 나를 ‘로컬 크리에이터’로 한걸음씩 다가가게 만들어 주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지 말지 다시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조건 더 일찍 유튜브를 하는 방법 외엔 생각해본 적이 없다. 그만큼 내 인생은 180도 바뀌었다. 20대 대학교

를 다니던 시절엔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돈을 벌며 삶을 영위하고 있는 나를 돌아보면 내 인생에서 유튜브와 로컬 크리에이터는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은 광주광역시 유튜버로서,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살며 느낀 점들을 솔직히 이야기해볼까 한다.

- 광주광역시는 여전히 크리에이터와 유튜버에게 블루오션이다.

광주광역시에서 유튜브를 운영하며 느낀 첫 번째 소감은, 무슨 이유인지 크리에이터들의 존재감이 적다는 점이다. 광주광역시의 이러한 모습과 달리 대구, 부산, 서울 등 타 지역의 경우 카메라나 핸드폰을 삼각대에 설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구독자 5천명 수준인 내게 크리에이터 관련된 행사나 특강 등 다양한 제안이 무수히 들어온다. 이는 상대적으로 구독자가 더 많은 대형 크리에이터들이나 유튜버들이 존재하는 다른 지역의 상황과는 분명 다르다. 가끔 내 구독자 숫자를 말하면 실망하는 수강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유튜브에서 접하는 크리에이터들의 구독자 숫자는 기본이 10만명은 되기 때문이다. 생각을 달리해보면 이는 광주광역시 유튜브 & 크리에이터 꿈나무들에게 희망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진흙 속에서 진주 찾기라고, 광주광역시에서 크리에이터는 그만큼 희소가치가 있을

뽀뽀 더러 값어치 또한 높다.

- 남녀노소 로컬 크리에이터, 이제 같이 합시다.

크리에이터들의 불모지 광주광역시에서 유튜브를 운영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대부분의 많은 콘텐츠들이 '인물' 중심으로 구독자들을 끌어 모으기 마련인데, 광주광역시를 콘텐츠로 하는 인플루언서가 있다면 그는 라이징 스타가 되어 광주광역시의 콘텐츠 붐(boom)을 이끌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광주광역시를 콘텐츠로 하는 라이징 스타의 부재로 광주광역시 내의 콘텐츠 산업의 활기가 조금은 느린 점이 아쉽다. 때문에 소수의 광주광역시 크리에이터들이 참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당연한 이치로 소수가 움직이는 것보다 다수가 움직이는 것이 광주광역시 크리에이터 시장에 더 큰 활기를 불러 올 것이다. 누구든지 괜찮다. 크리에이터 시장에 붐을 일으킬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다.

- 크리에이터는 광대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에이터를 떠올릴 때 연예인 혹은 준 연예인을 생각한다. 이제는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소속사 MCN이라는 구조도 생겼다.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 스포트라이트 혹은 영향력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기에 연예인과 비슷하게 보는 것이 당연해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크리에이터라는 영역은 보이는 것만큼 연예인과 가깝지 않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더욱 그렇다. 거의 백지와 같은 영역에서 그림을 그려야하기 때문에 창의성은 기본이고, 기획, 제작, 수정, 피드백까지 모든 영역에서 두각을 드러내야한다. 나 또한 그렇다. 날 챙겨보는 구독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끔은 광대가 된 것 같기도 하지만, 스스로 사업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로컬에서 크리에이터가 된다는 것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는 것도 일맥상통한다. 광대가 되는 것이 부끄러워 크리에이터가 되길 고민했다면, 이는 관점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크리에이터가 보이는 것만큼 이미지 소비가 강하진 않기 때문이다.



작년 즈음인가? 테러리스트로 유명했던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정명훈의 인터뷰에서 자기 스스로 '프로게이머라는 자부심이 매우 강하다'라는 문구를 봤다. 스타크래프트 프로리그를 챙겨보던 나도 프로게이머를 편견으로 바라보았던 것일까? 조금은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외면받던 미지의 영역에서 역할을 했던 프로게이머의 태도에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땐, 사람들을 웃기거나 관심받고 싶어 한다며 나를 뼈뺌하게 바라보던 시선들이 분명히 있었다. 우리 부모님마저 굳게 봐주시질 않았으니, 크리에이터로서의 정체성이 불분명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제는 광주광역시의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자부심이 매우 강하다. 미지의 영역에 발걸음을 하며, 내가 개척한 땅이 살만하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가끔은 이러한 내 전진이 외롭기도 하고, 소수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과분함도 있다. 크리에이터의 영역은 아직도 가능성이 넘치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끌어주고 밀어주는 것보다 함께 손잡고 나아가 보자. ♪



윤혁진 오로지스튜디오 대표

문화공감_ 김옥열의 포토에세이

“자유의 여신은 왜”



김옥열_ 사진작가

이 땅에 들어와 고생하는 것이
영어만이 아닌 것 같다. 저 자유
의 여신은 어찌하다 '자스민'이 되
어 이 땅 광주에서 저리고 서 있
을까?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스민 옥상에서 저리 벌벌 떨고
있는지. 모르기도 모르겠다. ♪





재단소식

[재단소식]

•사업

광주시 교육청에 『광주여행기』 단행본 책자 기증식 가져



우리 재단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광주여행기』 책자 기증식'을 갖고 320여 개 각 학교에 책자를 배부하고, 공동으로 수업안 등을 개발하기로 하는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열린 『광주여행기』 책자 기증식'에는 우리 재단 김덕진 이사장과 박신영 부이사장, 김정희 편집위원장, 이기훈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과 함께 한 자리에서 책자와 관련해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재단은 총 400부를 교육청에 기증하고, 각급 학교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누리집에서 콘텐츠를 다운로드가 가능토록 했으며, 수업안 개발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직

2022년 제1차 정기이사회 및 전체 임원 연석회의



2022년 1차 정기이사회 및 전체 임원 연석회의가 지난 2월 23

일(수)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대면 및 비대면 병행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임원회의(의결기구 대표단)에서 추천된(이사- 황병하 조선대 명예교수, 운영위원- 윤준혁 (주)지니엑스 대표, 김윤아 광주시 청년위원협의회 정책팀장, 후원이사로 손용만 광주관광협회 사무국장과 국형렬 금호시스템 부장)신규 임원을 선임하였다. 또한 추경 예산(안)은 공모 사업 선정 이후 교부 금액 확정되면 반영을 전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결하고, 신규 총원이 필요한 임원은 각 의결기구 대표단이 참여하는 임원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토록 위임하였다.

문화담론지 『창』 봄호(통권 56호) 기획 회의 개최



문화담론지 『창』 봄호(통권 56호) 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가 1월 20일(목) 11시,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봄호에서는 특집 기획으로 새 정부의 문화정책 진단과 모색을, 문화진단에서는 아토피 개정안 국회통과 이후 후속조치에 관한 내용을 다루기로 하였다. 또한 신년을 맞아 『창』의 형식과 내용을 일부 개편하여 발간하기로 하였다. 우리 재단이 계간으로 발행하고 있는 『창』은 문화정책 현안과 문화 담론 외에도 문화 청년그룹 소개, 문화리뷰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호평을 받고 있으며, 임직원뿐만 아니라 행정, 유관기관, 시민문화예술 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2022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한다’ 사업팀 회의



‘2022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 사업팀 3차 회의가 지난 3월 10일(목) 오후 2시에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 사업이 2002년 문화예술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의 후속조치 논의 및 프로그램 확정, 차질없는 행사 운영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한편, 지난 ‘2021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 행사는 현경교수의 광주정신 이야기, 대동의 춤, 오월정신 릴레이아트 프로그램을 약 5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하여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2022년 1차 재단 지역문화콘텐츠 연구소 기획위원회



우리 재단 부설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 1차 기획위원회가 지난 3월 10일(목) 18시 30분에 재단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소 주관으로 진행중인 ‘호남여행기 편찬사업’의 후속조치 논의를 통해서, 올해에는 책자 발간과 함께 사업 성과 공유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도 개최기로 하였다. 한편, 동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에 기획위원들이 참여하고, 2023년 연구 사업의 핵심 의제는 3월말까지 기획안을 마련하여 공유기로 하였다.

연대

재단 초대 이사장·사장 임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



우리 재단을 포함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12개 단체는 지난 24일 오전 옛

전남도청 앞 5·18 광장에서 재단 초대 이사장·사장 임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이번 문체부 인사는 재단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정관에 명시된 절차 무시, 지역과의 소통 부재 등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바라는 지역사회의 염원을 무시하는 행태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2022 대선 및 지방선거 광주시민연대 출범



우리 재단이 참여하고 있는 2022 대선 및 지방선거 광주시민연대(이하 광주시민연대)는 지난 2월 10일(목) 광주NGO센터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광주시민연대는 이번 대선이 정책실종 및 지역이 배제되었다고 진단하고 정치의 주체인 유권자와 함께 정책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또한 지방선거는 특정 정당의 독점이 지역 정치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평가하고 이의 해소를 위한 활동에 주력기로 하였다.

광주와 대한민국을 바꾸는 10대정책 협약식 개최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광주시민연대가(광주시민연대) 제안하는 10대 정책을 수용하는 각 정당이 참여하는 정책협약식이 광주YMCA무진관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은 광주시민연대가 마련한 10대 정책(자료실 참조)에 대한 각 정당의 수용도를 평가해 정책협약식을 진행한 것으로 시민연대와 협약에 참석한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은 신의 성실 원칙에 근거하여 정책 협

재단·회원소식

약 내용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다.

시키기 위해 미디어아티스트 진시영 작가가 함께 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광주시립발레단은 진시영 작가의 미디어아트 영상을 배경으로 2022년도 첫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 <남도일보> 발췌

[회원소식]

“회원님들의 소식을 받습니다”

회원님들의 기쁘고 축하할만한 소식을
『창』에 실고자 하오니 많은 연락 바랍니다.

김덕진 이사장(광주교육대 교수), 광주보훈청 ‘보훈문화교육 활성화’ 광주교대에 감사패 전달



광주지방보훈청(청장 임종배)은 2일 광주교육대학교에 국가보훈처장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에게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보훈문화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최도성 광주교대 총장과 김덕진 교수에게 각각 국가보훈처장 감사패와 표창장이 수여됐다. 광주교대와 광주보훈청은 지난해 4월 보훈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예비교원의 보훈정신함양을 위해 독립·호국·민주시설 탐방과 우수 지도안 모의 수업시연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 <아시아경제> 발췌

진시영 운영위원(미디어아트 작가),
광주시립발레단 ‘Voice of Spring’ 공연 콜라보



광주시립발레단은 오는 4월 7일 ~ 4월 9일 3일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2022년 첫 공연으로 정기공연 ‘Voice of Spring’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제목에서 짐작 할 수 있듯 봄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상큼한 작품들로 꾸러진다. 여기에 완성도 및 화려함을 증가

최형주 부회장(5·18구속부상자회 이사), 꿈 이룬 만학도들 “배울 수 있어 기뻐다”



83세의 최형주 씨 역시 조선대 미래사회융합대학에 입학해 4년 동안의 시간을 거쳐 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미래사회융합대학이라는 이름 그대로 미래 사회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 78세의 나이에 대학 진학을 결정했고, 문화 산업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이후 4년의 시간동안 학업을 꾸준히 이어온 결과 미래사회융합대학 1회 졸업을 맞게 됐고, 추후 조선대 경영대학원에 입학할 계획을 밝혔다.

- <광주매일신문> 발췌

이민원 이사(광주대 교수),
책 『석차경제 오징어게임의 경제학』 출간



책의 구성 제1편은 제로섬 따위는 무시하고 ‘부’를 향해 돌진하는 불나방들의 실태를 소환했다. 모두가 함께 부자가 되는 일은 불가능하기에 ‘부’의 측정 기준에 관한 근본적 탐구도 필요했다. 제2편에서는 이 책의 근간인 제로섬 법칙에 대해 살펴본다. 제로섬의 종류와 탈출 가능성 그리고 제로섬의 폐해에 대해 다뤘다. 제3편은 일상의 사람들이 제로섬의 한계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유와 문제점들을 소개한다. 경쟁을 성장의 동력으로 여기는 사회에서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 고문에 시달려 지독한 노력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현상을 검토했다. 제4편과 제5편은 저자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이 담겨있다.

- <남도일보> 발췌

주홍 부운영위원장(샌드애니메이션 작가),
TED×SNU 연사 '눈길'



지역 예술가가 아이디어의 가치 전파를 위한 TED×SNU 강의에 나서 눈길을 모은다. 그 주인공은 지역서 샌드아티스트이자 치유예술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홍 작가다.

주홍 작가는 지난 12일 서울 송파 청소년센터에서 샌드아트와 치유예술 세계의 경험을 관객들과 공유했다. 삶의 눈부신 아름다움은 어떤 것인가부터 우리는 무언가를 만들며 이것이 사라지는 순간을 생각해야함까지 샌드아트를 매개로 다양하게 이야기 나왔다. 이번 TED×SNU 주제는 '샤르다'로 사르고 남은, 새롭게 찾아낸 또렷한 가치를 전파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 <무등일보> 발췌

탁인석 회원(작가), 제18회 국제PEN광주문학상 수상



제18회 국제PEN광주문학상에는 탁인석 수필가가 선정됐다. '문학'이라는 마법을 통해 문화와 문학에 대한 마이더스라 불릴만큼 문화정책에 대한 대안적인 자세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전남매일> 발췌

주정민 회원(전남대 교수),

사회대학장 겸 정책대학원장 취임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지난 2월 1일 전남대 사회과학대 학장 겸 정책대학원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주정민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통신 및 콘텐츠 관련 정책 자문위원



으로 활동했으며 전남대 기획조정처장, 한국방송학회 회장, 광주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대내외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광주일보> 발췌

천의영 회원(경기대 교수),

한국건축가협회 제33대 회장 취임

한국건축가협회 제33대 회장에 천의영 경기대학교 교수가 취임한다. 신임회장으로 추대되는 천의영 회장은 "지난 65년이라는 시간의 훌륭한 전통을 이어온 한국건축가협회에 벅찬 기대와 커다란 책임감을 느낀다"며 "모두가 열린 협회의 주인공으로 함께하는 한국건축가협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국토일보> 발췌

“환영합니다”

신규회원

- 이종연(문화해설사)
- 이승남(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대외협력국장)
- 임낙평(서구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김일웅(공무원)
- 박상희(공무원)
- 송진환(전 광주시 교육청 비서실장)
- 기영준(공무원)

신규임원

<이사> 황병하(조선대 명예교수)

<운영위원>

- 윤준혁((주)지니엑스 대표)
- 김윤아(광주시 청년위원협의회 정책팀장)

<후원이사>

- 손용만(광주관광협회 사무국장)
- 국형렬(금호시스템 부장)

함께하는 사람들



재단법인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임원현황

이사회

<이사장>

김덕진 광주교육대 사회교육과 교수

<부이사장>

- 송진희 (재)광주디자인진흥원 원장
- 오형근 무등정책포럼 대표
- 박신영 국제PEN한국본부 광주지회장, 소설가
- 김양균 전통문화연구회 얼썩 대표

<상임이사>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이사>

- 김대현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김 성 (사)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상임고문
- 김영주 (주)광주전남ICT협회 회장
- 김옥렬 (주)다큐디자인 대표
- 김정희 시인 『광주문학』 편집주간
- 김하림 조선대 명예교수
-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부회장
-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
- 류영국 지오시티(주) 대표
- 박요주 세무사
- 서순복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 양봉모 불교방송 총괄본부장
- 오건규 화가
-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
- 이승권 조선대 프랑수어과 교수
- 이연수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이철우 전남대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 정현애 흥복학원 이사장
- 지형원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포럼 회장
- 황병하 조선대 명예교수

<감사>

- 윤만식 (사)한국민족극협회 고문
- 최회용 세무사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김양균 전통문화연구회 얼썩 대표

<부운영위원장>

- 박홍근 포유건축사사무소 대표
- 주 흥 샌드애니메이션 작가

<운영위원>

- 구용기 사직문화보존시민모임 사무총장
-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광주총괄지원연구관
- 김성환 서구청 문화정책 전문위원
- 김윤아 광주광역시 청년위원협의회 정책팀장
- 김향득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 김혜선 광주과학기술원 CT연구소 연구원
- 윤준혁 (주)지니엑스 대표
- 이상필 동신대 교수
- 정성구 (주)도시문화집단CS 대표
- 조인형 광주전남연구원 창원문화관광연구실장
- 조재용 비콘컴퍼니 대표
- 진시영 미디어아트 작가
- 한 선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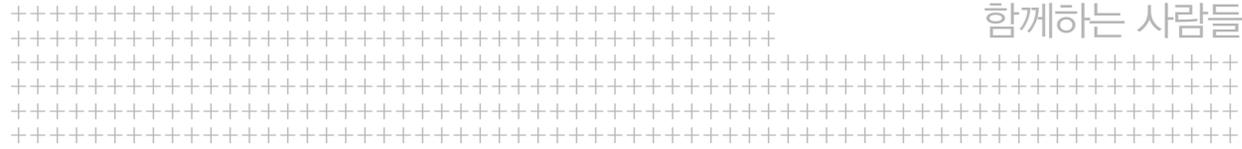
연구소 기획위원회

<연구소장>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

<기획위원>

- 김광욱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김원중 전 지역문화컨텐츠연구소 연구실장
- 노영기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 류영국 지오시티(주) 대표
- 이향준 전남대 철학교육연구센터 연구원



후원이사회

〈후원회장〉

오형근 무등정책포럼 대표

〈부회장〉

이대성 (주)웹매직 대표

최형주 (사)5·18구속부상자회 이사

〈후원이사〉

고영주 부성포장 대표

국형렬 금호시스템 부장

김동규 준이앤씨 대표

김병균 강토이앤씨 대표

김상집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성환 조선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용혁 (주)울림 부사장

손용만 광주관광협회 사무국장

유병연 삼진종합건설 기술이사

이명란 시인, 문학전문 강사

정광민 서로 건축사무소 대표

황재익 오스메딕 대표

고문

김상윤 윤상원기념사업회 고문

백수인 조선대 명예교수

재단사무처

이기훈 상임이사

이지은 운영팀장

이지호 사업팀장

김혜라 청년인턴

양수영 청년드리머

편집위원회

〈위원장〉

김옥열 (주)다큐디자인 대표

〈편집위원〉

김정희 시인, 『광주문학』 편집주간

김향득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박신영 국제PEN한국본부 광주지회장, 소설가

서순복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삼지천 돌담길의 매화나무

봄 햇살을 받는 아기자기한 돌담과 고즈넉한 한옥이 정겹게 느껴진다. 맑은 하늘과 함께 어우러진 매화나무에서 그윽하게 퍼지는 매화 향이 나그네의 발길을 붙잡는다.

편집 후기

이 즈음, 삼천리 금수강산은 찬란한 꽃잔치가 시작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봄을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이런 열병이 도진다면 많은 이들의 건강이 상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쓰린 이들이 많은 데, 앞친 데 뒷친격으로 새로 당선되신 분의 행보가 국민들 눈에 좀 거슬립니다. 한때 ‘국격’을 겁나게 따지던 통치자가 재임하는 동안 나라의 품격을 많이 떨어뜨렸는데, 그런 일이 또 생기지 않길 기도해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꽃이 피고 지진, 비가 오건 말건 간에 새 정부는 출범합니다. 미덥지 않지만 새 정부의 문화정책에 거는 기대는 짱짱합니다. 부디 우리 『창』 필자님들의 뜻이 잘 전달되어 지역문화도 융성하고 예술가들도 열정을 활화산처럼 꽃 피우는 세상이 왔으면 합니다. “예술가들에게 지원은 하되 간섭을 말라”며 “과거로 회귀하는 범죄를 저지른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는 김양균 대표님의 일갈을 새겨 들었으면 하는 바람도 큼니다.

제가 과분하게도 역사와 전통의 『창』 편집장을 맡아 처음 제작한 봄호 편집을 마무리합니다. 회원님들, 그리고 독자님들의 반응이 걱정됩니다. 전임 김정희 편집장님의 업적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새로운 분위기를 맞아 연재도 새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재단 김상운 고문님의 오랜 연구결과물인 신화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습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벌써 기대됩니다. 그밖에 옥고를 보내주신 여러 필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편집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름호도 알차게 준비해 찾아뵙겠습니다.

- 편집위원장

窓 ‘창’은 우리 겨레와 인류의 문화를 보는 눈입니다.

“빛불이 들었던 1980년 그 날처럼...”

2022년,
이제는 5.18 민주광장을
밝히는 영원히 꺼지지 않을
빛불이 되어,

빛의 분수대를
새롭게 탄생합니다.



고실에서 찾은 희망, 희망을 키우는 광주교육

